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구용법(九容法)을 통한 초등학생의 몸공부

Practice of Guyongbeop in elementary school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양 정 은

2012년 2월







석사학위논문

# 구용법(九容法)을 통한 초등학생의 몸공부

Practice of Guyongbeop in elementary school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양 정 은

2012년 2월





# 구용법(九容法)을 통한 초등학생의 몸공부

Practice of Guyongbeop in elementary school

지도교수 徐 明 錫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梁 禎 恩

2011년 12월







양정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년 12월





## 국 문 초 록

### 구용법(九容法)을 통한 초등학생의 몸공부

梁 禎 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지도교수 徐 明 錫

근대 교육 속 우리 아이들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비유할 수 있다. 학교 현장과 사회는 쉽 없이 밀려오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적만을 중요시 여기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진정한 학문은 다양한 배움과 함께 자신을 연마하는 과정을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을 연마하는 방법으로 성리학에서는 몸공부의 <소학>과 마음공부의 <대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몸공부는 바른 자세를 기르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른 자세는 바른 마음을 형성하도록 도우며 또한 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활용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몸공부를 위하여 율곡의 구용법(九容法)을 교실 현장에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아동들의 행동 변화와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구용법(九容法)을 통하여 아동들은 바른 태도를 실천할 수 있는가?
- 2) 구용법(九容法)을 통하여 아동들의 변화된 행동은 어떤 것인가?
- 3) 구용법(九容法)의 적용이 교실 현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가?

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들은 발, 손, 눈, 입, 머리, 서 있는 자세와 목과 코에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얼굴 표정을 포함하는 아홉 가지 태도인 구용법을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바른 태도의 실천은 스스로에게 뿌듯한 마음을 심어주었고, 이 마음은 다시 바른 태도를 실천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아이들은 예의 바른 인사와 바르게 서있는 태도 등 자신 스스로 바른 행동을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던 친구가 절제를 하는 모습과 평소 어두운 표정을 하던 친구가 밝은 표정으로 변하는 모습 등을 보며 서로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었다.

셋째, 구용법의 실천으로 만들어진 습관은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좋은 학급 분위기를 이끄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구용법은 아이들과 교사 사이,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 학급 규칙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구용법은 아이들이 바른 자세와 마음을 형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의 습관은 한 번 형성되었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구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스스로 끊임없는 성찰을 하여야 하며, 학생의 발달 수준과 행동 변화에 맞는 학생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구용법(九容法), 몸공부(몸工夫)



## 차 례

국문 초록 .....	i
I. 들머리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문제 .....	3
3.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	3
II. 몸공부론의 세계 .....	5
1. 선행연구 검토 .....	5
2. 몸공부의 의미 .....	8
3. 율곡의 『격몽요결』 내의 구용법 .....	11
가. 『격몽요결』의 편찬 배경 .....	11
나. 『격몽요결』결의 내용 체계 .....	12
다. 구용법 내용 .....	14
III. 교육적 적용_풍경 이야기 .....	18
1. 봄 이야기_아이들의 바른 태도 실천 .....	21
2. 여름 이야기_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 .....	34
3. 가을 이야기_교실현장에서의 긍정적인 효과 .....	44
4. 겨울 이야기_교사의 깊은 성찰 .....	56
IV. 논의 .....	59
1. 전(前)_몸공부의 필요성 .....	60
2. 중(中)_몸공부의 적용 .....	62
3. 후(後)_몸공부의 현대적 의의 .....	64
V. 마무리 .....	66



참고 문헌 .....	70
ABSTRACT .....	73
부 록 .....	74



## <표 차례>

<표 II-1> 『격몽요결』의 내용 체계 .....	13
<표 III-1> 풍경이야기 구성 .....	21

## <그림 차례>

<그림 II-1> 사람됨 교육 .....	9
<그림 II-2> 몸공부 모형 .....	10
<그림 II-3> 구용법의 신체 배치도 .....	16
<그림 III-1> 『성학집요』 교육 내용 .....	19
<그림 III-2> 우리 반의 마무리 인사 .....	44





## I. 들머리

人生欺世 非學問 無以爲人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된 학문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擊蒙要訣』序)

### 1. 연구의 필요성

근대 교육 속 우리의 아이들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에 가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은 이미 머리와 몸의 비율에서 머리만 커진 가분수의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에게 공부란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에 의미를 둔다. 이러한 면에서 근대 교육은 교사가 주어진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즉, 교사와 학생 모두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를 배울-대상(교육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 교육을 각 교과목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둔 물학(物學)의 집합체라 일컬을 수 있다(서명석, 2000: 67). 이러한 교육이 학교교육에 고착화됨에 따라 가르침과 배움 사이에는 배우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더 많은 내용을 습득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주어진 질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일관된 답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의 학교 교육은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는 성적만 높으면 어떠한 행동도 허락되는 사회분위기, 틀에 맞추어진 답을 해결하기 위한 일관된 사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삶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하여 좀 더 발전된 자신으로 이끌어가려는 학문이 우리 교육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진정한 학문은 다양한 배움과 함께 자신을 연마하는 과정을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동양의 유·불·도의 전통은 학문과 함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면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동양의 학문은 오랜 동안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을 논



하며 이러한 성찰이 학문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고민하였다. 이러한 학문 중 성리학에서는 몸공부의 <소학>과 마음공부를 논하는 <대학>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책상 앞에서 이루어지는 책 속의 공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리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부란 직접 몸으로 실천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신동은, 2004a: 124-125).

성리학을 공부함에 있어 초학자들에게 학문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책 중에 『소학』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조선 시대에 단지 한자를 공부하는 문자 학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공부를 통틀어 소학이라고 하였다. 조선 시대 『소학』과 같은 역할의 동몽 교재로는 『격몽요결』, 『동몽선습』, 『명심보감』 등이 있다(신동은, 2004b: 46). 이런 동몽 교재의 기본적인 틀은 작은 배움의 <소학>에서 큰 배움의 <대학>으로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8~15세까지는 주로 <소학>의 몸공부에 힘을 쓰고, 15세 이후에는 <대학>의 마음공부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聖人の 모습을 갖추는 것을 공부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성리학의 구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육은 몸공부에 집중하여야 할 때이다(서명석, 2010a: 141). 지금 초등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지식교육 위주의 공부편중 현상은 성리학에서의 공부와 성리학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나는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정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리학에서 말하는 바른 자세와 바른 행동의 갖추인 몸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동몽교재인 율곡의 『격몽요결』 내의 구용법(九容法)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공부 중 몸공부를 교실 현장에서 교육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격몽요결』 내의 구용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교실 안에서 구용법을 실천함으로써 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바른 몸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리고 구용법을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학교 현장에서 구용법의 활용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 2. 연구의 문제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몸공부를 위하여 율곡의 구용법(九容法)을 교실 현장에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아동들의 행동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 1) 구용법을 통하여 아동들은 바른 태도를 실천할 수 있는가?
- 2) 구용법을 통하여 아동들의 변화된 행동은 어떤 것인가?
- 3) 구용법의 적용이 교실 현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가?

## 3.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 가. 연구 방법

이 연구는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구용법을 교실에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와 적용단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교사와 아동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질적 연구 방법으로 해석한 것이다. 3~5월까지의 구용법의 한자음과 뜻, 내용, 실천 방법을 배우고 생활에서 직접 실천하면서 느끼는 마음과 행동변화를 성찰일기의 이야기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6월에는 구용법을 실천하면서 변화된 친구들과 우리 반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7~11월은 한 달 속 날짜의 끝자리 수를 맞추어 9일간 구용법 집중 실천 기간(11일: 일용날, 12일: 이용날, ... , 18일: 팔용날, 19일: 구용날)을 운영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 나는 구용법을 통해 변화하는 아이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질적 연구 방법의 내러티브 연구를 선택하였다.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Inquiry)란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기술하기 위해 이야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데 주목하는 연구이다(진영은, 2006:36). 그리고 Denzin & Lincoln(2005: 641)은 “오늘날 내러티브 연구가 모든 곳에서 번성하고 있으며 내러티브 속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다양한 시선에 따라 많은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방법으로 내러티브 연구를 선택하였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변화를 일관된 데이터나 통계자료만으로는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태도를 파악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의미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 연구는 구용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세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은 직접 구용법을 실천하면서 느끼는 학생의 시선과 그러한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와 학부모의 시선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다. 학생의 시선으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의 시선은 구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의 시선은 구용법 실천을 통한 친구와 우리 학급의 변화 모습을 학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구자의 ‘교사일지’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변화를 바라보는 교사의 시선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학부모 회신서’를 통하여 아이들의 변화를 바라보는 학부모의 시선을 살펴보았다.

한편, 이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삼각 측정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연구 자료에는 학생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성찰하는 문서자료, 학부모 및 연구자의 관찰자료, 우리 반을 바라보는 동료교사와의 면담자료가 포함된다.

내러티브는 살아 있고 말하는 이야기이다.

- Clandinin, D. J. & Connelly, F. M.(2000: 20)

## 나.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연구자가 담임을 맡은 제주서초등학교 6학년 4반 아동 34명(남: 20명, 여: 14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나는 우리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아이들의 변화에 항상 관심을 두며 활력이 넘치고 웃음이 가득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점을 항상 생각한다. 이러한 고민으로 올해는 구용법을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실천해보고자

한다. 구용법을 통한 몸공부의 연구 대상을 우리 교실 속 아이들로 함으로써 나는 아이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수행결과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구용법의 효과를 확인하기가 수월했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개선할 점을 확인하여 이를 다시 실행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 II. 몸공부론의 세계

凡人之所以爲人者 禮義也.

禮義之始 在於正容體 濟顏色 順辭令

무릇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예의 때문이다.

예의의 시작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낮빛을 가지런하게 하며 사령을 부드럽게 하는 데서 비롯된다.

(『예기』 「관의」)

### 1.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율곡의 아동 교육관에 대한 연구, 『격몽요결』의 내용 체제를 분석한 연구, 『격몽요결』의 지도 체계와 도덕 교육과정을 접목하는 연구, 『격몽요결』을 통한 특정분야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을 기술한 연구, 현대 교육에서 『격몽요결』의 교육사상을 접목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격몽요결』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연구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율곡의 아동 교육관과 교육원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율곡의 아동 교육 원리는 개인-가정-사회의 순으로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가지며, 실천교육을 중요시한다. 이 교육원리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보면, 김혜경(2004)은 아동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 이기주의와 집단 따돌림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율곡의 아동 교육관을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율곡의 아동교육관은 자아의 확립과 성숙을 위해 개인

의 나를 중심으로 교육이 시작되고, 핵가족화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윤리교육을 다루며, 사회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禮를 중시하는 과정을 가지기 때문이다(김혜경, 2004: 59-60). 그리고 『격몽요결』의 10장의 내용은 개인, 가족, 사회의 순으로 학습 경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율곡의 교육원리를 담고 있다(김병희, 2010: 50). 마지막으로 『격몽요결』 속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 일상화인 거경(居敬)과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실천적 수양 방법인 역행(力行)을 제시하면서 실천교육 원리를 중시하고 있다(김지연, 2006: 57-61).

다음으로 『격몽요결』의 내용체제의 분석을 두 가지 연구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율곡이 추구하는 ‘학문을 통한 인간다운 인간상’을 갖추기 위하여 『격몽요결』의 내용체제를 학문의 방법과 학문의 실용성으로 나누어 제시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학문의 방법 영역에는 학문의 뜻을 세워(立志) 자신의 잘못된 옛 습관을 버리고(革舊習) 몸가짐을 바르게 하며(持身) 옛 성현의 가르침을 통해 현재의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게 하는(讀書)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학문의 실용적 영역에는 효행(事親, 喪制, 祭禮, 居家)을 갖추고, 나와 남을 돌아보는 인간관계를 형성(接人)하며 행실에서의 모범을 중시하는(處世)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문태순, 2004: 103-104). 다음으로 『격몽요결』의 내용체제를 세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수신 영역(立志, 革舊習, 持身, 讀書), 제가 영역(事親, 喪制, 祭禮, 居家), 접인·처세 영역(接人, 處世)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김병희, 2010: 45-49).

세 번째로 검토한 내용은 『격몽요결』의 내용체계와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내용체계의 가치와 덕목을 비교한 연구이다.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은 『격몽요결』의 입지장, 혁구습장, 지신장, 거가장을 통하여 자주, 성실, 책임, 용기, 절제와 관련된 가치를 분석하였고,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영역은 사친장, 지신장, 상제장, 제례장, 접인장, 거가장을 통하여 효도, 예절, 사랑, 생명 존중과 관련된 가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은 지신장, 접인장, 거가장, 처세장을 통하여 정의, 준법과 관련된 가치를 분석하였다(채경숙, 2008: 37-38).

다음으로 검토한 내용은 『격몽요결』의 내용을 통하여 특정 분야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다. 장순덕(2008)은 『격몽요결』의 독서(讀書)장을 중심으로 경전, 사서, 성리서 읽

기의 지적 발달에 맞는 독서과정과 율곡이 중요시하는 숙독의 방법을 제시하며 율곡의 독서 교육관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안진희(2009)는 입지, 혁구습, 지신, 독서를 통한 수기(修己)의 자기 경영 내적 리더십을 갖추고, 섬김으로의 사친, 의와 인의 실천인 거가, 예의 실천인 접인, 인간성 회복인 처세를 통해 치인(治人)의 관계경영의 외적 리더십을 갖추었을 때 성인이라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격몽요결의 리더십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격몽요결』에 관한 연구가 인성교육, 예절교육 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영역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동양의 수양론적 교육내용을 ‘경영’이라는 경제용어와 ‘리더’라는 서양식 단어에 비유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교육에서 『격몽요결』의 교육사상을 접목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연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들은 교육방법으로 마음의 격을 꾸준히 향상시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입지, 성의, 궁리, 역행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내용으로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독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래적 선을 기르기 위한 독서교육과 가정, 사회에서의 예절교육을 중시하고 있다.(김건중, 2006; 김영애, 2003; 문제술, 2001; 윤종을, 2002) 그러나 위의 연구에서는 『격몽요결』의 교육내용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고, 간단한 이론적 과정을 제시하였을 뿐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한 제안은 나타나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격몽요결』에 나타난 아동교육관, 『격몽요결』의 내용체계 분석, 현재 도덕교육의 내용체계와 『격몽요결』의 내용체계를 비교하는 연구 또는 『격몽요결』의 교육사상을 현대 교육에 적용하는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격몽요결』의 내용을 분석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한 연구는 있었으나 직접 학교 현장에서 『격몽요결』의 내용을 적용한 사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격몽요결』의 구용법을 분석하고, 실천내용을 제시한 서명석(2010a)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먼저 『격몽요결』의 내용과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를 다루는 구용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의 실천내용과 함께 구용법의 내용을 교실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일어나는 학생들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 2. 몸공부의 의미

현대사회 속 아이들은 교과 공부에 치중한 공부를 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동안 교과 공부를 하고 다시 학원으로 교과 공부를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다. 교사들은 주지주의 교육의 편중과 경쟁 중심의 교육으로 아이들의 인성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한 예로 교실 속에는 자신의 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 입만 떼면 욕으로 가득한 아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장난으로 괴롭히는 아이들의 행동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과 태도도 바르게 갖추지 못한 채 지식만을 머릿속에 가득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교육에서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작용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의 끈을 놓지 않는다. 먼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덕 교과서를 살펴보면 <도덕적 이해 중심-가치 판단 중심-가치 심화 중심>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혀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21-73). 이는 학교의 도덕교육 또한 하나의 교육내용으로 접근하고, 덕목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의 덕목들을 가르쳤을 때, 모든 아이들이 그 덕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을 서명석(2008)의 연구 내용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서양에서 수입된 담론들을 도덕, 윤리, 인성, 그리고 인격으로 나누고 각 담론의 언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담론의 대표적 언표로 <도덕담론>: morality, <윤리담론>: ethics, <인성담론>: personality, <인격담론>: character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담론들은 우리 교육 속에 들어와 도덕교육, 윤리교육, 인성교육 프로그램, character교육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격몽요결』 서문의 내용처럼 진정한 학문은 다양한 배움과 함께 자신을 연마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진정한 학문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아 진정한 사람됨을 지녀야 할 때이다. 이러한 ‘사람됨의



교육'을 서명석(2010b)은 '사람다움에-이르도록-가르치고-기르는-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됨의 교육을 다른 표현으로 <인격교육담론>으로 말할 수 있다. <인격교육담론>의 대표적인 언표로는 사람됨, 사람다움,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 품성, 품격 등이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람됨'이란 성리학에서 말하는 성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성인이 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닦는 수기(修己)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이 수기(修己)의 과정은 자신의 몸을 닦아 물과 같이 흐르는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잡고, 다시금 마음공부를 통하여 각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행동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람됨'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그어놓고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됨'은 바다에 밀물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다. '사람됨의 교육'을 좀 더 자세히 풀면 다음과 같다.

# 人 人, 人 人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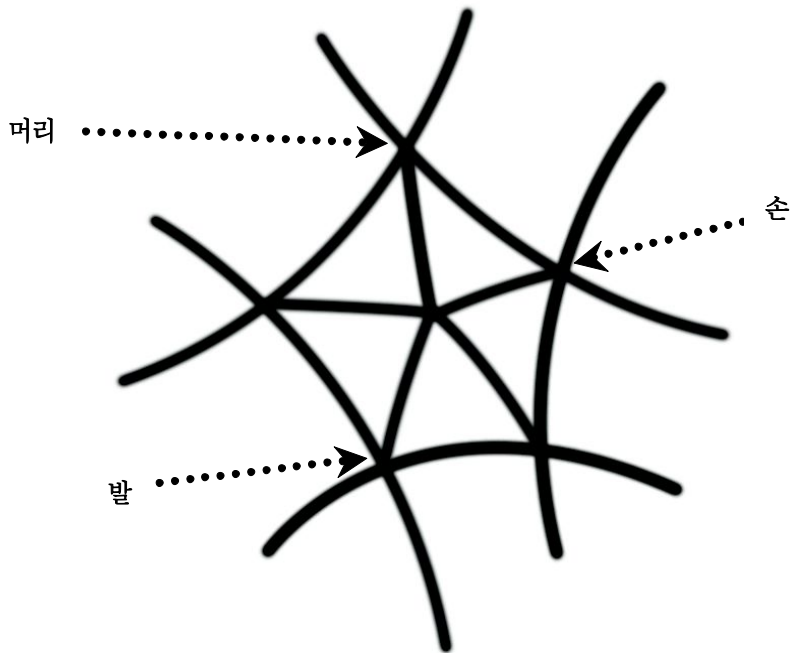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진정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림 II-1] 사람됨 교육

\* 출처: 서명석(2010). 인격교육담론의 재-평가. 인격교육, 4(1), p. 41.

[그림 II-1] 에서 사람(人)이 가리키는 대상은 모두가 똑같지 않다. 이것은 형태만 사람의 모습을 한다고 모두가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람다움을 갖춘 사람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됨'을 갖추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연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리학의 공부에서는 몸으로 실천하면서 얻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때의 몸과 마음은 다른 형태를 하고 있지만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는 서로 얽혀 있는 존재이다. 즉, 몸을 좀 더 바르게 갖추으로써 마음의 상태를 고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다시금 바른 몸가짐을 나타낼 수 있는 선순환의 반복을 일컫는다(신동은, 2004a: 127-128). 이러한 '사람됨의 교육'을 위한 몸과 마음의 공

부를 나타낸 모형을 다음 [그림 II-2]를 놓고 살펴보자.



[그림 II-2] 몸공부 모형

[그림 II-2]는 사람 인(人) 글자 다섯 개를 이어서 그린 정오각형이다. 사람 인(人) 글자 다섯 개가 서로 의지하며 이룬 정오각형은 제일 위의 꼭짓점이 머리를 가리키며 그 아래의 두 개의 꼭짓점은 손, 맨 아래의 꼭짓점은 다리를 나타낸다. 정오각형의 중심과 각 꼭짓점을 선분으로 이었을 때, 머리, 손, 발의 모양을 바르게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다섯 개의 선분은 각각의 구용법의 자세를 행했을 때, 바르게 서 있는 입용덕(立容德)의 자세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몸공부의 모형처럼 바른 몸을 갖추었을 때, 정오각형의 중심점은 바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몸공부가 사람됨의 인격교육 안에 함께 담겨 있으며 몸공부를 통하여 마음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학문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연마가 필요하듯이 현대교육에서도 진정한 학문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 우리 교육은 교과 지식만을 추구하는 교과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뒹아 내 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부를 '사람됨의 교육'으로 다시금 언급할 수 있다.

진정 사람들에게 '사람됨'이 스며들기를 바란다. 이 사람됨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사람됨의 나무'를 키운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됨의 나무'에서 몸공부는 그 나무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뿌리가 곧고 깊게 심어져 있어야 그 위에 줄기와 풍성한 잎사귀 그리고 열매까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 상태와 상대의 마음 상태를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몸공부를 통하여 바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바른 마음이 다시금 바른 태도로 이어져 한 그루의 멋진 '사람됨의 나무'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현대 사회 속 큰 폭풍우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됨'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단단한 뿌리를 만드는 '몸공부'의 실천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율곡의 『격몽요결』 내의 구용법

#### 가. 『격몽요결』의 편찬 배경

『격몽요결』은 율곡이 황해도 해주의 석담(石潭)에서 병 요양을 위해 머물던 1577년, 학문을 물어온 학생들을 위해 지은 책이다(황성만, 1995: 135). 격몽(擊蒙)이란 어리석고 몽매한 자들을 깨우친다는 뜻이고, 요결(要訣)은 그 일의 중요한 비결이라는 뜻이다. 『격몽요결』의 서문을 보면 율곡의 집필 동기가 잘 나타나 있다.

#### 『擊蒙要訣』 序

余定居海山之陽, 有一二學徒, 相從問學.

余慙無以爲師, 而且恐初學 不知向方, 且無堅固之志而泛泛請益, 則彼此無補, 反貽人譏.

故 略書一冊子, 粗敍立心飭躬奉親接物之方, 名曰『擊蒙要訣』, 欲使學徒觀此, 洗心立脚, 當日下功, 而余亦久患因循, 欲以自警省焉.

丁丑季冬, 德水李珥 書.

내가 해산(海山: 海州)의 남쪽에 거처를 정하자, 한두 명의 학도가 서로 따라와 묻고 배

우니, 나는 그들의 스승이 될 수 없음을 부끄럽게 여겼으며, 또 처음 배우는 이가 향방을 알지 못하고, 또 굳은 뜻이 없으면서 범연(泛然)히 더 배우기를 청하면 피차에 도움이 없고 도리어 남의 비방을 살까 두려웠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한 책자를 써서 뜻을 세우고 몸을 삼가며, 어버이를 받들고 남을 대하는 방법을 대강 서술하고 이름을 『격몽요결』이라 하여, 학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마음을 씻고 다리를 세워 당일로 공부에 착수하게 하려고 하였으며, 나 또한 오랫동안 인순함을 근심하여 이로써 스스로 경계하고 살피고자 하노라.

정축년(1577) 계동(季冬: 선달)에 덕수(德水) 이이는 쓰노라.(성백효, 1992: 67)

『격몽요결』은 입신출세만을 추구하는 당시의 학생들에게 진정한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황성만, 1995: 137). 그리고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이미 400년 전 중국에서 편찬된 『소학』이 동몽교재로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이에 율곡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성리학의 수양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격몽요결』을 저술하였다(김병희, 2010: 49-50). 이 『격몽요결』은 초학자들을 위해 쓰인 책으로 그 내용은 학문에 뜻을 세우고(立志), 자신의 몸을 바르게 세우며(革舊習, 持身), 공부하는 방법(讀書)과 기본적인 가정에서의 예절(事親, 喪制, 祭禮, 居家), 사회에 나가 활동할 때의 인간관계(接人)와 활동 모습(處世)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과 같이 율곡은 학문을 통하여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기 위한 초학자들의 지침서로 『격몽요결』을 저술하였다.

#### 나. 『격몽요결』의 내용 체계

이 책은 모두 38권으로 구성된 『율곡전서』의 27권에 들어 있고, 율곡의 서문을 비롯하여 입지(立志)장, 혁구습(革舊習)장, 지신(持身)장, 독서(讀書)장, 사친(事親)장, 상제(喪制)장, 제례(祭禮)장, 거가(居家)장, 접인(接人)장, 처세(處世)장의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1] 『격몽요결』의 내용 체계

구분		순서와 장		주요 내용
학문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자세	학문의 전제조건	제1장	입지 (立志)	학문하는 모든 사람은 뜻을 세우고, 성인이 되기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한다.
	학문의 준비단계	제2장	혁구습 (革舊習)	구습에 얽매이지 않고 잘못된 습관을 떨쳐버려야 한다. 없애야 할 구습을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제3장	지신 (持身)	구용법(九容法): 몸과 마음을 수렴 구사법(九思法): 학문에 있어 지혜의 향상
	학문의 시작	제4장	독서 (讀書)	이치를 궁리하고 도를 실천하기 위해 독서를 해야 한다. 독서의 구체적 방법, 고전 소개, 읽는 순서 제시하고 있다.
가정예절		제5장	사친 (事親)	효도의 당위성과 부모를 모시는 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6장	상제 (喪制)	주문공(朱文公: 朱子)의 가례(家禮)에 따라 예를 행해야 하며 부모상과 친척상을 치르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7장	제례 (祭禮)	제사는 공경과 정성을 다해야 하며 가례(家禮)에 따라 사당을 세워 선조의 신주를 받들고, 제전을 설치하고 제기를 마련하여 종자가 이를 주관하여야 한다.
		제8장	거가 (居家)	집 안에 머무를 때 필요한 부부간, 형제간의 예절을 다루고, 처자와 집안 식구들을 거느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생활예절		제9장	접인 (接人)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법과 친구를 선택하는 방법 등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 예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10장	처세 (處世)	과거가 아니면 도를 행할 지위에 나아갈 길이 없다고 말하며 사회에 나가 처신하는 데 중요한 과거와 벼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출처: 성백효 역(1992). 童蒙先習擊蒙要訣.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pp. 67-151.

10장으로 구성된 『격몽요결』은 크게 3개의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1장의 입지(立志)장에서 4장의 독서(讀書)장까지는 학문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자세로 개인의 몸과 마음을 다루는 것을 논하고 있다. 5장의 사친(事親)장에서 7장의 거가(居家)장까지는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예절을 다루고 있고, 9장의 접인(接人)장과 10장의 처세(處世)장에서는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예절들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 구성은 공부함에 있어 나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사회로 크게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정호훈, 2005: 12). 또한 이런 내용 구성은 『대학』에서 제시하는 유학의 공부단계인 수신(修身)-제가(齋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흐름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김병희, 2010: 45-46). 그리고 율곡이 편찬한 『격몽요결』의 내용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학문의 중요함을 깨우치고, 인간 관계를 중요하게 다룬다. 그래서 『격몽요결』은 학문 입문의 처음을 준비하는 단계로 자신의 몸을 가다듬는 방법, 가정예절, 사회예절을 다룸으로써 몸공부와 마음공부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격몽요결』은 지금 현대 교육에서 중심이 되는 지식위주의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다. 구용법 내용

유가가 공부를 통하여 九容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까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통로임과 동시에 상대방과의 상호 작용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을 읽기 위하여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에 관심을 보인다(신동은, 2004b: 56). 이것은 자신의 몸을 바르게 유지하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자신의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고, 예의 바른 태도를 통하여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몸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격몽요결』 내의 구용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격몽요결』 제3장에 나오는 「지신장」의 한 부분으로 구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常須夙興夜寐 衣冠必正 容色必肅 拱手危坐 行步安詳 言語愼重 一動一靜 不可輕忽 苟且放過 收斂身心 莫切於九容 進學益智 莫切於九思 所謂九容者...

항상 모름지기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서 의관을 반드시 바르게 하고, 얼굴빛을 반드시 엄숙하게 하여 손을 모으고 무릎꿇고 앉으며, 걸음걸이를 편안하고 조용히 하며, 언어를 신중히 하여 일동일정(一動一靜)을 가법고 소홀히 하여 구차스럽게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한다. 몸과 마음을 수렴하는 것에는 九容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고, 학문에 나아가 지혜를 더

하는 데는 九思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이른바 구용이란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성백효, 1992: 78)

율곡은 학문에 나아가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으로 아홉 가지의 몸을 바르게 하는 태도인 구용(九容)을 제시하고, 학문에 나아가기 위해 지혜를 더하는 방법으로 아홉 가지의 생각을 바르게 하는 구사(九思)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몸공부와 관련된 구용의 자세만을 다루려고 한다. 다음의 내용은 율곡의 『격몽요결』 내의 구용법의 내용을 발췌하여 각각의 내용을 자세하게 풀이한 것이다.

① 足容重 ← 第一容禮法

不輕擧也 若趨于尊 長之前則 不可拘此

[발의 모양을 무겁게 한다.

발걸음을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존경하는 사람이나 나이 드신 사람 앞으로 달려 나아갈 때에는 이것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② 手容恭 ← 第二容禮法

手無慢弛 無事 則當端拱 不妄動

[손의 모양을 공손하게 한다.

손을 제멋대로 하거나 해이해짐이 없이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의당 단정하게 두 손을 공수하고 망령되지 움직이지 않는다.]

③ 目容端 ← 第三容禮法

定其眼睫 視瞻當正 不可流眇邪睇

[눈의 모양을 단정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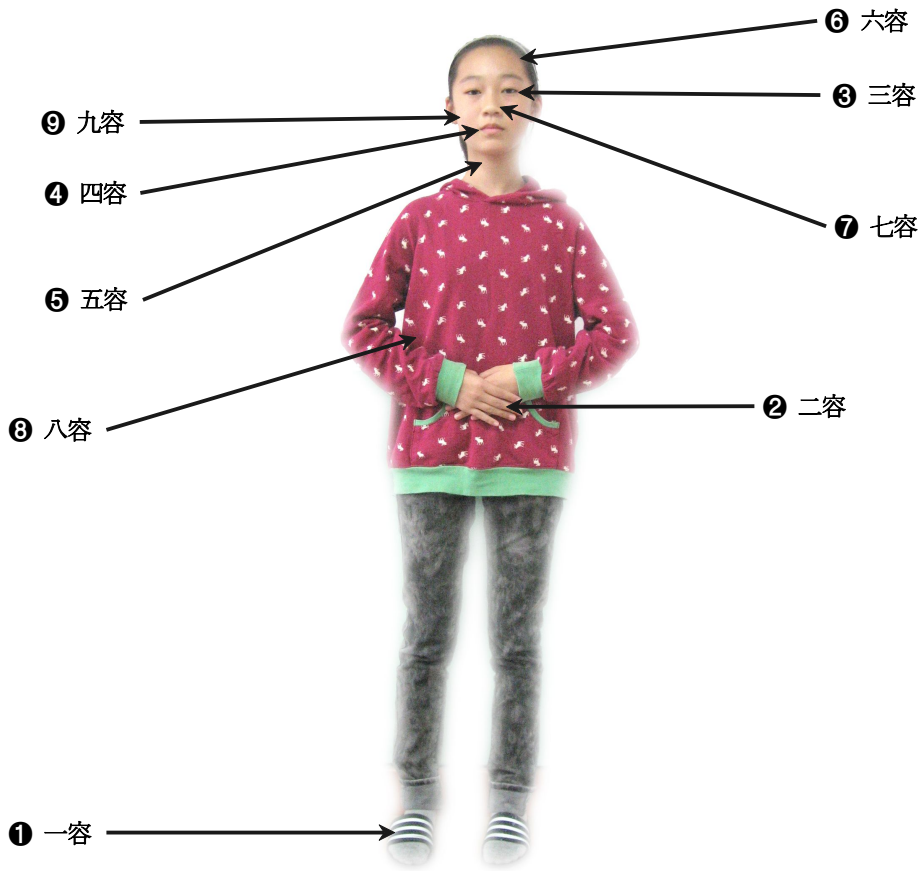
눈동자를 안정시켜서 바라보는 것과 우러러보고 굽어보는 것을 마땅히 바르게 할 것이며 함부로 흘려보거나 샅되게 훑쳐보아서는 안 된다.]

④ 口容止 ← 第四容禮法

非言語飲食之時 則口常不動

[입의 모양을 다물게 한다.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면 입을 항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림 II-3] 구용법의 신체 배치도

\* 출처: 서명석(2010). 유가 몸공부법의 존재위상: 『격몽요결』의 구용법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24(3), p. 144.

⑤ 聲容靜 ← 第五容禮法

當整攝形氣 不可出噦咳等雜聲

[목소리의 모양을 조용하게 한다.

마땅히 形氣를 고르고 가다듬어 구역질이나 가래침 등의 잡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⑥ 頭容直 ← 第六容禮法

當正頭直身 不可傾回偏倚



[머리의 모양을 곧게 해야 한다.

마땅히 머리를 바르게 하고 몸을 곧게 해야 하며 머리를 기울여 돌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서는 안 된다.]

⑦ 氣容肅 ← 第七容禮法

當調和鼻息 不可使有聲氣

[숨의 모양은 엄숙해야 한다.

마땅히 호흡을 고르게 할 것이요 멋대로 소리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

⑧ 立容德 ← 第八容禮法

中立不倚 儼然有德之氣像

[서 있는 모양은 덕스럽게 한다.

똑바로 서서 치우치지 않아 삼가 덕이 있는 기상을 만든다.]

⑨ 色容莊 ← 第九容禮法

顏色 整齊 無怠慢之氣

[얼굴 모양[빛]은 장엄하게 한다.

얼굴빛을 단정히 하여 태만한 모양[기운]이 없어야 한다.]

『擊蒙要訣』 「持身章」

\* ‘← 第一容禮法’은 새로 그 이름을 붙인 것으로 이하 모두 같다.

(서명석, 2010a: 142-143)

위의 텍스트는 몸공부를 위한 하나의 텍스트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즉, 이 텍스트는 각각의 신체 부위인 ①발의 모양(足容), ②손의 모양(手容), ③눈의 모양(目容), ④입의 모양(口容), ⑤목에서 나오는 소리(聲容), ⑥머리의 모양(頭容), ⑦숨소리 모습(氣容), ⑧서 있는 모양(立容), ⑨얼굴빛 또는 얼굴표정의 모양(色容)의 아홉 가지 바른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바른 태도를 지니고, 기본적인 예를 행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 Ⅲ. 교육적 적용\_풍경 이야기

心如盤水最難持. 墮甕投坑在霎時.

爲報僉賢操守固, 世紛叢裏卓無移.

마음은 쟁반의 물 같이 가장 잡기 어려우니

도랑이나 구덩이에 빠져들기 삼시간일세

그대들에게 알리노니 몸가짐을 굳게 하여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우뚝 서서 변치 말게나

(율곡 이이 詩 -寄精舍學徒(1581) 은병정사의 학도들에게 부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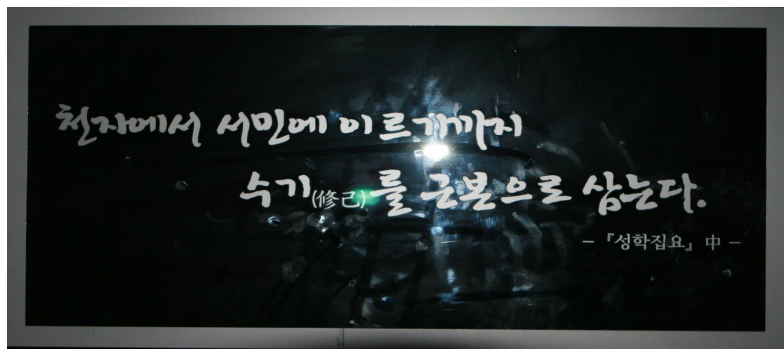
2010년 대학원 3학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학기는 <교육방법의 철학적 기초> 강의였다. Idealism, Realism, Pragmatism, Progressivism, Post-modernism의 서양 교육철학의 흐름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대학원 수업이 영어의 한계에 부딪혀서 힘들기도 했지만, 수업 시간만큼은 서양 교육철학의 뼈대를 그릴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서양교육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 만이 극복할 수 있기에 기본적인 서양교육철학을 배웠다. 그리고 서양의 주지주의 교육 한계를 우리나라의 동양교육에서 찾는 공부를 하였다. 동양교육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고 동양교육에 관한 논문을 읽고 영상을 볼 때면 나의 마음은 더욱 편안해졌다.

#### #1\_ 마음의 시작

아주 조금이나마 우리 동양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읽어갈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서양의 지식추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닦고 좀 더 나은 나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여서 그런지 다시금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나는 시험 기간에 맞추어, 그리고 행사에 맞추어 움직이면서 아이들을 몰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받은 어떠한지 생각해 볼 기회조차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말이다. 좀 더 나은 마음 받이 되었을 때, 서로 주고받는 대화나 학교생활에서도 좀 더 다른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텐데 어쩌면 나는 진도에 맞추어 열심히 돌아가는 시계바늘이었던지도 모르겠다.

(2010. 05. 13. 연구자의 교육대학원 수업 스터디페이퍼 중에서)

차츰 몸과 마음을 닦는 동양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전해주시는 동양교육의 내용을 직접 초등학교 학급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다.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 내의 구용법을 몸공부의 실천방법으로 제시해 주셨다. 구용법을 교실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는 내가 직접 우리 반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연구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너무 좋았다. 그리고 그해 여름, 율곡기념관을 다녀왔다. 아래 내용은 파주에 있는 율곡기념관에 첫발을 디디며 본 것이다.



[그림 III-1] 『성학집요』 교육 내용

\* 출처: 율곡기념관 내 전시된 자료

위의 [그림 III-1]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는 신분에 귀천이 없이 조선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이 내용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하는 이야기이다. 그래서인지 내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와 닿은 문구이기도 하다. 여정 중 율곡기념관에서 율곡 이이의 생애와 업적 등을 살펴보고 우리는 화석정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율곡 이이가 제자들과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던 곳이다. 화석정 앞을 흐르는 임진강과 화석정 옆 큰 느티나무를 보며 앞으로 연구하게 될 구용법의 풍경을 눈과 마음에 담았다. 그리고 그 해 겨울, 『소학』, 『격몽요결』과 관련된 논문 자료를 모으고, 교실에서 어떻게 구용법을 실천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준비하였다.

새로운 2011년, 나는 열한 번째 아이들을 만났다.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기대하며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지낼지 고민을 한다. 올해는 진정 ‘사람됨’이 스며드는 교실을 꿈꾸며 아이들

과 3월 첫 단추를 맞추기 시작했다.

## #2\_ 3월 우리 반 아이들의 풍경

가만히 앉아 우리 반 아이들을 떠올려본다. 지난 학년 선생님들이 해주는 아이들에 관한 말은 새로운 아이를 바라보는 교사에게 미리 아이에 대해 사전지식을 알 수 있는 약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 아이에 대한 선입관을 만드는 독이기도 하다.

수학여행 코스 이야기를 한참 하던 차에 협의실 문이 열리고 체육 선생님이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얼굴이 별정계 달아오른 두 아이는 우리 반 석우와 다른 반 한 아이였다. 축구를 하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주먹을 날리며 싸운 것이다. 두 아이를 체육 선생님이 화해를 시키고 교실로 돌려보냈다. 협의실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작년 5학년을 맡았던 선생님들은 석우가 작년 학교에서 싸움쟁이였고 그래서 작년 담임선생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해주었다. 욱하는 성격도 있고, 작년 싸움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6학년이 되어서 일주일도 안 지났지만, 나의 눈에 석우는 새 학년이 되어서 잘하려는 마음이 큰 아이로 보인다. 일단 오늘 사건은 체육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얼음공주 민아! 민아는 작년 3월 초에 반 아이들이 자신을 왕따 시킨다며 창문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했던 아이라고 한다.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고 가면 속에 자신을 감추고 있는 아이인 것 같다. 철민이는 우리 학급에서 수업시간에 대답도 잘하고 수학, 과학에 관심이 많은 아이이다. 그러나 어제 수학문제를 잘 못 푸는 친구를 가르쳐주다가 “그것도 못하냐?”라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똑똑함을 나누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2011. 3. 9. 교사일지 중에서 발췌함)

\* 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 우리 반 아이들이다. 3월 나의 눈에 인상 깊게 남는 아이들이었다. 이 글에서 석우, 민아, 철민은 모두 다 가명이다.

항상 반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존재한다. 3월은 교사도 아이들을 파악하는 기간이지만 아이들 또한 담임선생님을 살펴보는 기간이다. 일명 서로 간을 보는 시간이다. 6학년이지만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용법을 연구 주제로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하였다. 행동과 말로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이, 가정생활에서 상처받은 아이, 아직 너무 어린 생각을 가진 아이 등 우리 반에 온 모든 아이

를 환영하며 일 년 동안 구용법을 통해 어떤 변화가 진행될지 기대해본다.

[표 III-1] 풍경이야기 구성

구 성	풍 경 이 야 기
봄	<b>아이들의 바른 행동 실천</b> - 구용법 1용~4용(발, 손, 눈, 입의 태도)을 배우고, 아이들이 직접 바른 행동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이야기한다.
여름	<b>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b> - 구용법 5용~9용(목에서 나오는 소리, 머리, 숨소리, 서 있는 모습, 얼굴 모습)을 배우고, 자신의 변화, 친구의 변화, 우리 반의 변화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가을	<b>교실현장에서의 긍정적인 효과</b> - 몸공부의 하나로 구용법을 교실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한다.(사람됨의 나무 심기, 반 대항 축구대회, 구용법 집중실천기간 운영)
겨울	<b>교사의 깊은 성찰</b> - 꾸준한 몸공부를 위해 교사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계속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반성하고 다짐하는 이야기를 한다.

## 1. 봄 이야기\_아이들의 바른 태도 실천

풍경이 눈으로 들어온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그리고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함에 따라 그 풍경이 다시 보인다.

(2011. 3. 9. 교사일지에서 발췌함)

3월 둘째 주부터 매주 도덕 시간을 이용하여 구용법을 활용한 몸공부를 시작하였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구용법을 가르치는 순서에 대해 고민하였다. 우리는 주변에서 배꼽 인사를 하는 꼬마, 설날 새해인사를 드리며 손을 가지런히 모아 놓는 어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구용법의 자세 중 아이들이 조금 더 친근한 손에 관련된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더 의미

가 있으리라 생각하여 수용공을 먼저 가르쳤다. 그러나 생활 속 동기유발은 손의 자세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우리 반에서 매일 실천하는 인사를 할 때, 흐트러진 아이들의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의 첫 단추는 발의 바른 태도였다. 발이 바르게 먼저 실천이 되어야 다른 태도도 바르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구용법에서 제시되는 순서에 맞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논문의 교육적 적용에서는 <1용 즉 용중>을 배우는 내용부터 제시하였다. 그리고 구용법의 순서를 익히기도 하고, 하나의 규칙으로 적용하기 위해 아이들과 각각의 구용법을 1용, 2용, ... , 8용, 9용으로 약속하였다.

### 가. 1용: 즉용중(足容重)

운동장에 모여 있을 때, 어른들의 말을 들을 때 아이들은 조금도 쉬지 않고 발을 움직인다. <즉용중>은 발을 무겁게 하는 태도로 아이들의 마음을 차분하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다. 수업 시간 교실에 아이들을 모두 서게 하고 처음에는 다리를 뺄뺄이 하게 해서 서게 하였다. 흔히 아이들이 말하는 ‘짹다리’이다. 이 자세에 들어가게 되니 아이들은 금방이라도 껌을 질경질경 씹으며 건들거리기 시작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로 두 발을 땅에 바르게 놓고 서 있게 하였다. 잠깐의 행동 차이인데도 교실 분위기는 짹 달라졌다. 두 자세를 했을 때 느낌을 비교하여 쓴 아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 ■ <즉용중>을 안 했을 때의 느낌

- 편하다
- 버릇없고 날라리 같았다.
- 짹다리를 하고 있으면 건달 느낌이 난다.
- 건방지고 정신 사나웠다.

#### ■ <즉용중>을 했을 때의 느낌

- 힘들다(약간 다리가 저리는 느낌)
- 무겁고 공식적인 자리에 있을 때처럼 긴장했다.
-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는 것 같다.
- 불편하지만 공손해진 느낌

■ <족용중>을 했을 때의 마음가짐

- 앞으로 발을 무겁게 해서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될 것이다.
- 어른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나 예의를 갖추어야 할 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 공손하게 족용중을 하고 나니 그 후에는 마음이 후련해진다.
- 앞으로는 애국조희나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족용중’을 실천하겠다.

(2011. 3. 18. 도덕 시간에 이루어진 몸공부법 <족용중> 학습 내용 모음)

아이들은 발을 바르게 하는 자세를 통해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고, 이 마음은 다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힘을 만들어주었다. 다음은 아이들이 서로 의논한 우리 주변 상황에서 <족용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이다.

■ <족용중>을 우리 주변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

- 인사를 할 때
-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 들을 때
- 발표할 때
- 꾸중들을 때
- 복도에서 뛰지 않기
- 어른이 말할 때 다리 떨지 않기
- 친구를 발로 때리지 않기
- 어른 앞에서 짹다리 하지 않기
- 걸을 때 발을 질질 끌지 않기
- 주위에 ‘족용중’을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2011. 3. 18.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족용중> 실천사례 모둠토의 내용)

아이들은 굳이 선생님이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실천해야 할 곳을 적절하게 찾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5교시가 끝난 후 제일 먼저 눈에 띈 모습은 교실에서 실내화를 질질 끌고 다니던 아이들의 걸음이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내 옆에 와서 무언가를 물어보는 아이가 발을 계속 움직일 때는 ‘발’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하거나 ‘발 가만히’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내 입에서 <족용중>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족용중>이라는 말에 움직이는 다리를 딱 멈추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아이들과 나 사이에 약속이 생겼다.

<죽용중>이라는 약속 말이다.

### #1\_ 나는 알고 있지요.

오늘 학교에서 ‘죽용중’을 배웠다. ...<중략>... 학교에서 공수법과 죽용중을 배웠는데 배우기 전의 내가 계속 생각나서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렇다고 계속 부끄러워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 웃어른, 부모님께 공수법과 죽용중을 많이 실천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의바름이 묻어나는 예의바른 어린이가 되고 싶다. **웃어른과 부모님께서 공수법과 죽용중에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그냥 인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나는 뿌듯하고 기쁠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모르시더라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의 기쁜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혼자서 몰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더 맛있는 것과 같이 혼자서 몰래 알고 있는 뿌듯함도 더 나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지 않을까?

(2011. 3. 18. 김○○의 성찰일기 중에서 발췌함)

### #2\_ 꼭 실천해야 해?

‘학교에서 배운 죽용중을 꼭 실천해야 할까?’

<죽용중> 수용공 다음으로 배운 구용법 중에 하나로 오늘 처음으로 실천해 보았다. 오늘 죽용중을 배우고, 저번에는 수용공을 배웠다. 앞으로 7개가 남았다. **그런데 오늘 죽용중을 실천해보니 불편하고 답답하고 자꾸만 뺨뚫어졌다.** 그래도 실천할 만 했다. 오늘은 집에서 가족이 모두 파를 다듬었다. 그런데 아빠가 10분 정도 까다가 눈이 매워서 못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그러자 아빠가 알았다며 다시 파를 까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20분 후 모두 끝냈다. 이 때 내가 아빠한테 말했던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는 지금 사용해도 맞는 말이겠지? 아무리 하기 싫고 귀찮아도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끝도 내가 봐야겠지? 앞으로 남은 7가지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잘 실천해야겠다. 또 ‘앞으로 남은 7개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든다.

(2011. 3. 18. 최○○의 성찰일기 중에서 발췌함)

### #3\_ 구용법... 우리만 하기에는 아깝잖아!

오늘 5교시 도덕시간에 수용공(손)에 이어 죽용중(발)을 배웠다. 죽용중의 뜻은 ‘발을 무겁게 하라’라는 뜻이다. ...<중략>... 이제 인사를 할 때는 죽용중도 추가된다. **구용법은 생활에서 실천하기에 좋은 것 같다. 구용법으로 뼈뚫하게 선 것도 계속 움직였던 것도 모든**



버릇이 사라진 것 같다. 그리고 중독된 것 같다. ‘인사’라는 말만 나오면 수용공 자세와 즉 용중 자세가 딱 나온다.(커피에 중독된 사람처럼...) 실천하기 좋은 구용법이 우리 반만 쓰기 좀 아까우니까 우리 학교에 다 알려져서 우리 학교 전교생들이 인사를 할 때 구용법을 쓰면 ‘예의 바른 학교’로 소문날 것 같다. 구용법을 하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확 난다. 구용법을 할 땐 보람이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는 좀 초조하고 급한 마음이 들었다.

(2011. 3. 18. 이○○의 성찰일기 중에서 발췌함)

\* 진한 글씨는 연구자가 강조한 것이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의 일기를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는 것도 오랜만이다. 아이들은 단지 구용법을 배우고 머릿속 지식으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도 경험을 통해 파악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많고 아직 불평의 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 불평의 소리를 불평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현재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실천일기를 통해 나타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구용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아직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구용법이 와 닿도록 교사의 가르치는 목소리만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의 경험과 변화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야겠다.

## 나. 2용: 수용공(手容恭)

우리는 손의 모양을 단정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무심코 흘러 버릴 수 있는 마음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공수 자세를 가르쳤다. 남자 아이들에게는 왼손이 위로 하여 손을 포개어 잡고, 여자 아이들에게는 오른손이 위로 하여 손을 포개어 잡게 하였다. 아이들은 공수 자세를 행하면서 느낀 자신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 공수법을 했을 때의 느낌

-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해서 기분이 좋다.
- 예의 있어 보인다.
- 좀 귀찮기는 하지만 무언가를 알게 되어서 좋다.

- 건방진 마음이 조금 사라진다.
- 내가 웬지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았다.

■ **공수법을 하지 않았을 때의 느낌**

- 아무 느낌 없이 인사를 했다.
- 내가 매일 하던 행동이니까 편하다.
- 예의 없어 보인다.

■ **공수시의 마음 상태**

- 편안해지고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
- 제대로 하자고 생각한다.
- 침착해졌다.

■ **미공수시의 마음 상태**

- 듣는 것 반 딴청 반
- 짹짹하다.
- 그냥 그렇다.

(2011. 3. 11.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몸공부법 <수용공> 학습 내용 모음)

아이들이 제출한 구용법 학습지를 보면 좋은 반응을 보이는 친구도 있지만, 자세가 불편하다는 친구, 내심 배우는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친구들의 모습도 있었다. 이 상황을 보며 학급의 모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모든 변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찰일기를 살펴보면 아이들은 조금씩 공수의 태도를 직접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 태도를 함으로써 오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4\_ 예의 바르게 느껴지는 하루**

오늘은 학교에서 '공수법'에 대하여 배웠다. 공수란 남자는 왼쪽 손을 오른손 위에 포개어 배에 갖다 대는 것이고, 여자는 오른손을 왼손 위에 포개어 배에 갖다 댄 후 웃어뜰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법이다.

우리 반은 평소에도 '공수'를 많이 하고 있다. 웬지 공수를 하면 내가 공손해진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오늘은 학교에서 공수법에 대한 학습지를 하였다. 하나는 공수법을 하면 느낌이 어떤지 쓰는 내용이었고, 하나는 한자를 쓰는 학습지였다. **오늘은 왠지 공손해지고, 예의 바르게 느껴진 하루였다.**

(2011. 3. 11. 김○○의 성찰일기 중에서 발췌함)

**#5\_ 부모님은 알고 계실까? 나의 달라진 인사를......**

오늘 학교에서 공수법이라는 인사 예절을 배웠다. ...<중략>... 어른께 공수법을 하니 공수법을 하지 않고 인사했을 때보다 침착하게 보이고 공손하게 보였다. 그리고 공수법을 하니 꼭 비행기 안에 있는 스튜어디스 같았다. 오늘 배운 공수법을 집에서 꼭 실천하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일을 끝내고 오신 부모님께 공수법으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셨다. 진짜 보람이 있었고 뿌듯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인사를 할 때 공수법으로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1. 3. 11. 정○○의 성찰일기 중에서 발췌함)

**#6\_ 혼날 때가 먼저 생각나요.**

금요일날 선생님께 공수를 배웠다. **조금 불편하였다.** 혼날 때도 공수, 인사할 때도 공수를 하라고 하였다. 남자 공수는 오른손이 밑에 왼손이 위로 해서 하는 것이다. 공수가 조금 불편하지만 계속하면 익숙해지니까 인사할 때도 혼날 때도 공수를 하며 다녀야겠다.

(2011. 3. 13. 석우의 성찰일기 중에서 발췌함)

주말이 지난 후, 아이들은 어떻게 구용법을 받아들였는지 아이들의 실천일기 내용이 궁금했다. 아이들은 직접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공수 자세로 인사를 해서 칭찬을 받았고, 마음의 즐거움과 함께 스스로 예의 바른 사람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아주 큰 변화이고 효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석우의 일기는 나에게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나는 6학년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석우의 태도를 믿으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석우에 대한 염려를 묶어 놓고 있다. 그러나 오늘 석우의 구용법 성찰일기를 보면서 “그래! 한 번 믿어보고, 멋있게 시작해보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마음 속으로 걱정을 했던 석우에게서 반응이 나타나 너무나도 기뻐다. 그 후 석우는 내 옆에 와서 무언가를 물어볼 때, 공수 자세를 한다. 물론 아직은 혼날 때가 먼저 생각한다는 반응이지만 그래도 그 반응조차도 좋다. 그리고 우리 반 다른 아이들도 내 옆에 와서 무언가를 물어볼 때 공수 자세를 한다. 이 모습은 우리 아이들

의 작은 변화이지만 큰 변화로 이어지는 커다란 움직임이었다.

### 다. 3용: 목용단(目容端)

금요일 5교시가 되면 아이들과 어떻게 구용법을 가르치고 배울까 고민하게 된다. 구용법 실천이 딱딱한 예절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마음으로 느껴야 만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실천이 따라야만 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더욱 고민하게 된다. <목용단>은 몸가짐 중 눈에 관한 실천 태도이다. “사람은 눈을 통하여 말을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눈을 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은 아이들과 <동작 1>과 <동작 2>를 하면서 친구의 눈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였다.

- <동작 1> 두 명의 친구가 마주 서고, 앞을 바르게 보며 친구의 얼굴을 바라본다.
  - 웬지 믿음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다.
  - 눈이 초롱초롱하고, 행동이 바르다.
  - 서로 눈을 계속 마주치니까 웃음이 난다.
  - 바르게 볼 때는 시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다.
  
- <동작 2> 두 명의 친구가 마주 서고, 서로 친구를 결눈질하며 쳐다본다.
  - 믿음감이 푹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 기분이 나쁘고, 행동이 안 좋아진다.
  - 짜증이 확 난다.
  
- <목용단>을 했을 때의 느낌
  - 평소 친구를 기분 나쁘게 봤는데 웬지 익숙지 않다.
  - 찜찜해왔을 때는 짝다리가 되는데 <동작 1>을 하면 죽용증이 된다.
  - 친구사이의 관계가 좋아진다.
  - 다른 사람의 인상을 알 수 있었다.
  
- <목용단>을 했을 때의 마음가짐
  - 평소에 친구를 좀 기분 나쁘게 봤었는지 고치기 어렵겠지만 고치려고 노력하겠다.
  -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저번에 배웠던 1용과 2용도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생긴다.

■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나의 다짐**

- 오늘 배운 목용단을 생활에서 친구들을 짜려보지 말고 목용단을 실천해야겠다.
- 함부로 남의 것을 훔쳐보지 말아야겠다.

(2011. 3. 25.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목용단> 학습 내용 모음)

아이들은 오늘 해본 두 가지 동작으로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고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활지도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특히 ‘결눈질하면서 입을 가리고 속닥거리는 여자아이들’은 서로가 오해하고 그 오해의 씨앗이 더욱 큰 문제를 만들 때가 잦았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에게는 ‘욕하지 않는 주먹’을 강조하고, 여자아이들에게는 ‘자기들 끼리의 뒷담화(남의 이야기를 몰래 하는 것) 하지 않기’를 강조했었다. 이런 행동의 예방으로 <목용단> 체험은 효과가 있었다. 서로 짜려보는 1분 동안, 서로 단정하게 바라보는 1분 동안 아이들은 서로에게 눈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강조하지 않아도 친구를 바르게 바라보는 아이들의 입가에는 서로 미소를 띄고 있었다.

**#7\_ 기다려지는 도덕시간**

오늘 학교에서 1용: 즉용중, 2용: 수용공을 배우고 오늘은 3용을 배우게 되었다. ...<중략>... 먼저 목용단을 하지 않고 결눈질(짜려보기)을 했다. 나는 ○○와 짝이 되어, 함께 together(?) 짜려보았다. 짜려보는 시선이 일단 눈동자가 깜빡깜빡 거리지도 않고, 크게 떠진 다음, 손도 자동대로 팔짱을 끼게 된다. 그리고 다리도 짝다리가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시선을 한 가운데를 보면 왠지 따뜻한 기분이 든다.(근데 웃기는 건 어쩔 수 없나봐...ㅋㅋ~^^ 나만 웃긴가?) 이제부터 아침 인사에서 끝인사까지 목용단이 추가 + 될 것 같다. 마지막 9용까지 배우고, 인사할 때 1용~9용까지 하려면... 세월아~ 네월아~ 힘들다. 힘들어..-\_- 근데 요즘 구용법을 배우는 게 신나고 재미있어졌다. 그래서 **날마다 금요일 5교시 도덕시간이 항상 기다려진다^^** 다음 4용은 3용에서 눈이 나왔으니 까 코?? 입??... 아무거나 나와라!!!

(2011. 3. 25. 박○○의 성찰일기 중에서 발췌함)

\* 학생이 쓴 일기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이나 줄임말,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이 나타난다.

내가 교사로 살아오면서 “도덕시간이 기다려진다”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다. 나에게 도덕 시간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속 마음가짐과 태도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시간 도덕책의 내용을 읽거나 훈계하는 시간, 가끔은 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나는 구용법을 통해 도덕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의 태도를 반성하고 다시금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잡게 되었다.

#### 라. 4용: 구용지(口容止)

<구용지>는 입의 모양을 다물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면 입을 항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구용지>를 실천하기 위해 다른 때는 도덕시간을 5교시에 했는데, 4교시에 <구용지> 내용을 공부하고 점심시간에 실천을 하고 느낌을 적게 하였다.

##### ■ 오늘 급식시간에 <구용지>의 태도를 실천했을 때의 느낌

-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느꼈다.
- 나는 입술을 뜯는 버릇이 있어서 입을 자주 움직이는데 그걸 고치려니 좀 힘들다.
- 밥 먹는데 집중하게 되어서 훨씬 덜 흘리고 먹은 것 같다.
- 평소에 말을 하면서 음식을 먹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조금 불편하였다.
- 어려웠다.
- 입을 안 여니까 입을 움직이고 싶다.

##### ■ 오늘 급식시간에 <구용지>의 태도를 실천했을 때의 마음가짐

- 수다 떨면서 먹지 않아서 차분한 마음으로 먹게 되었다.
- 답답하지만 차분해졌다.
- 구용지는 예의가 바르지만 하는 사람은 좀 불편하다.

(2011. 4. 8.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구용지> 학습지 중에서 발췌함)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점심시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오늘 <구용지>의 내용을 실천하다보니 아이들에게는 불편한 형식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래서 같은 날 6교시에 아이들과 <구용지>를 현재 우리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였다. 먹을 때에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

는 것이 좋다는 아이들의 의견이 많아서 밥을 먹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하기, 입 속에 음식을 담고 말하지 않기 등의 제한 사항을 정했다. 그리고 <구용지>의 실천으로 입술 뜯지 않기, 자꾸 입을 움직이지 않기, 욕하지 않기 등이 나왔다. 나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을 얼른 받아 아이들에게 <구용지>의 실천으로 욕하지 않기와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기를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못하는 친구에게, 실수한 친구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자고 남자아이들에게 강조하였다.

### #8\_ 구용법 하나하나 다 뜻이 있나봐...

저번 금요일 도덕시간에 구용법 중 4용을 배웠다. 4용은 구용지를 배웠다. 구용지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어라라는 뜻이다. ...<중략>... 불필요한 말을 하면 남들이 다 알아주지도 않는 말인데 말을 줄이니 더 나아진 것 같다. **구용법은 하나하나 다 뜻이 있는 행동인 것 같다. 나도 이제부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구용지를 배우기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겠다.** 근데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올 구용법에 나머지 5용, 6용, 7용, 8용, 9용을 생각해 보니깐 더 이상 나올게 없는 것 같다. 발, 손, 눈, 입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나올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더 나올게 예상하려면 머리모양? 코? 그 다음은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거(구용법) 쓰신 율곡 이이님 좀 짱이신듯ㅋㅋ^^

(2011. 4. 10. 정○○의 성찰일기 중에서 발췌함)

위의 성찰일기에 나타나듯이 아이들은 구용법 하나하나를 몸으로 배우면서 다음을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씩 배우는 자세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더욱 바른 자세를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 마.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

4월의 마지막 날, 새로운 구용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자신이 직접 실천한 내용을 성찰일지로 적어보았다.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한 내용은 다양했다.

신○○: 지금은 맨 먼저 배운 수용공이 인사할 때 학교 인사가 아니라 전체, 개인적인

인사 때로 올라간다.(손) ...중략... 이처럼 구용법을 배우면서 나의 생활은 달라지고 있다. 구용법을 다 배우는 순간 우리 반은 예의 바른 반으로 쑥쑥 자라날 것이다.

최○○: 어머니 아빠께 꾸중들을 때에도 나도 모르게 다리와 손이 모아진다. 꾸중 들을 때는 짜증이 나서 그 때의 기분이 어떠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불편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도 나도 모르게 실천하게 되는 죽용중과 수용공!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실천하는 것은 그 만큼 내 몸에 익숙해졌다는 뜻이겠지?**

정○○: 성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그때마다 “할아버지 미워? 좋아?”라고 장난을 치신다. 그때에도 나는 수용공이 돼 있었다. 우리 집만 그럴지 아닐지는 몰라도 **우리 집은 제를 지낼 때 수용공을 한다. 그때마다 항상 지적받았는데, 이제는 누가 말하기 전, 수용공을 내가 먼저 한다. ...중략... 지금 수용공이 버릇이 됐을까?**

송○○: 캅스카우트 캠프 가서 대장님에 말씀을 들을 때 구용법을 실천하였다. **구용법을 실천하니 대장님에 말씀도 더 잘 들리고 마음 속으로 ‘내가 구용법을 하다니 신기하다’라고 마음 속으로 말을 했다.**

문○○: 5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연 리허설 같은 것들을 할 때 짝다리로 서서 주의를 받고 악기 레슨을 할 때에도 주의를 많이 받았다. 인사를 할 때도 어물쩍하게 해서 혼도 많이 났는데 이제는 바르게 인사를 해서 칭찬을 듣고 있다. 구용법을 실천하니 기분도 좋고 좀 더 바르게 생활해서 너무나 좋다.

(2011. 4. 30. 특활시간. 3, 4월을 돌아보는 성찰일지 중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구용법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아래 친구의 성찰일지를 보면 선생님에게 배우기는 하지만 진정한 실천은 친구의 모습을 보고 느끼고 자신이 직접 해보았을 때라는 것을 알려준다.

김○○: 3월에 처음으로 죽용중을 배웠다. ...중략... 2번째로 수용공을 배웠다. **이번에도 또 배우나? 하며 싫어했고, 끝날 때 해야 하니까 귀찮았지만, 아이들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석우와 ○○가 싸워서 석우가 혼날 때 죽용중은 잘 실천하지 않았지만 수용공은 완벽히 실천한 것 같다. 학교 끝나고 ○○를 기다리는데 선생님께서 나와 ○○를 부르셨다. 석우도 그 자리에 있었



는데 족용중, 수용공을 실천하고 있었다. 또 수업시간에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나는 비로소 실천을 하며 구용법이 좋다는 것을 느꼈다.

장○○: 처음으로 구용지, 목용단, 수용공, 족용중을 배웠을 때 내가 실천하기에는 꽤 어려웠다. 입을 움직이는 버릇과 발을 움직이는 버릇이 있어 더욱 어려웠다. 하지만 학교가 끝나서 선생님께 인사하고 내가 잊지 않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여 내 몸에 이제는 익숙하게 되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 나의 몸에 딱 붙어 버린 것 같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뿌듯하고 이제는 별로 불편하지 않다.

(2011. 4. 30. 특활시간. 3, 4월을 돌아보는 성찰일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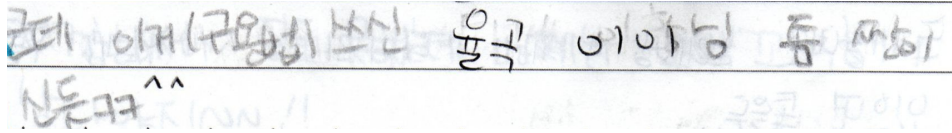
구용법의 실천은 그 다음 단계인 구용법의 습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는 집에 가기 전 그동안 배운 구용법 자세를 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크게 말하면서 인사를 한다. 매일매일 하는 끝인사가 아이들에게 몸공부법을 체화하는 과정으로 효과가 있었고, 아이들도 생활 속에서 습관화를 계속 하고 있었다.

강○○: 수용공을 배울 때 쉬울 것 같았다. 그런데 해보니까 어색하고 약간 불편하였다. 하지만 집에 가기 전 인사를 공수로 해서 익숙해졌다.

문○○: 우리는 3월 달에 처음으로 수용공을 배웠다. 처음에는 웃겼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었다. 수용공 다음에는 족용중을 배웠다. 이것은 아직 습관화는 잘되지 않아도 습관을 계속 들이고 있다.

(2011. 4. 30. 특활시간. 3, 4월을 돌아보는 성찰일지 중에서)

## 2. 여름 이야기\_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



(2011. 4. 10. 정○○의 <구용지> 성찰일기 중에서 발췌함)

5월이 되면서 초록의 잎들이 더욱 풍성해지듯이 우리 반에서 이루어지는 구용법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깨닫고, 친구들의 변화와 우리 반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 가. 5용: 성용정(聲容靜)

<성용정>은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고요하게 하고, 구역질이나 가래침 등의 잡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안 좋은 버릇을 자랑삼아 계속해서 침을 뱉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이런 목에서 나오는 좋지 않는 버릇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 우리 주변에서 <성용정>을 지키지 않는 모습

- 우리 아빠는 차에서 내리면 꼭! ‘카악~ 튀’를 한다.
- 할 말 없음...(내가 반성중)
- 학원 갈 때 중학교 형들을 보면 그 형들이 이 사이로 침을 뱉을 때가 있다.
-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우고 나서 가래침을 뱉는다.

#### ■ 우리 주변에서 <성용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거나 내가 했을 때의 마음

- 기분이 나쁘고 더럽다.
- 더럽고 무서워서 피하고 싶었다.
- 부끄럽고 창피하다.
- 예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성용정>을 배운 후 나의 다짐

- 목에서 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입을 가린 다음에 하란 말이다.
- 남에게 피해가 가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침 뱉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더러워 보이고 보기 안 좋다는 것을 알았다.

(2011. 5. 13. 몸공부법 <성용정> 학습 내용 모음)

<성용정> 공부를 마치고 아이들의 성찰일기 중 “<성용정>으로 목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박명수처럼 악마의 목소리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미리 미리 가래 등 목 관리를 잘 해야 한다”라는 내용 덕분에 우리 교실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오늘 공부를 하면서 습관처럼 나오는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조심해야겠다고 아이들은 다짐을 하고 있었다.

나. 6용: 두용직(頭容直)

<두용직>은 머리를 기울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지 않고 바르게 하여 머리를 곧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업시간에 턱을 괴어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머리가 기울어져 있는 아이들도 많다. 오늘은 <두용직>을 배우기 위해 아이들에게 머리가 기울어지도록 서게 하였다. 그랬더니 머리가 기울어지면서 몸이 비틀어지고 팔과 다리도 비틀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활동을 하고 난 후 아이들의 다짐 내용들이다.

■ <두용직>을 배운 후 나의 다짐

- 나는 평소 턱을 괴는 습관이 있는데, 두용직을 배우고 나서 이제는 턱 괴는 습관을 안 하겠다고 다짐했다.
- 두용직을 배우기 전 나는 항상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턱을 괴는 버릇이 있었는데 두용직을 통해서 머리를 바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1. 5. 20. 몸공부법 <두용직> 학습 내용 모음)

<두용직>의 실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나만 하더라도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면 한 손으로 턱을 괴고, 고개도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의 실천 일기 속에서도 <두용직>의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

은 친구들의 태도를 보며 자신의 태도를 고치려고 하였고 나의 눈에 그런 자신의 실천의지를 다잡으며 노력하는 아이들의 변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다.

### #1\_ 친구는 나의 거울

우리 반은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알게 된 구용법으로 달라진 점이 많은 것 같다. ...<중략>... 턱을 괴는 버릇이 있었는데 강○○가 너무 바른 자세로 있어서인지 나도 모르게 자세가 조금만 안 좋아질 때면 전에 짝꿍이었던 강○○의 바른 자세가 생각나서 자세를 올바르게 고치며 머리도 턱도 괴지 않고 올바르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중략>... 구용법으로 인해 우리 반의 달라진 모습이 엿보인다.

(2011. 5. 22. 이○○의 성찰일기 중에서)

### #2\_ 어려워도 노력하고 있어요.

난 오늘 학교에서 이제까지 배웠던 구용법을 되돌아보았다. 우리 반은 처음 도덕시간부터 구용법을 차례대로 배워왔다. 처음엔 수용공을 시작으로 우리 반은 구용법에 대해 배우고 있다. 나는 구용법을 배우고 나서 처음에는 그 행동을 실천하기가 어려웠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 즉용중과 수용공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구용법 중 하나는 두용직이다.** 두용직은 머리의 모양을 곧게 하라라는 뜻인데, 난 TV를 볼 때나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때 자꾸만 턱을 괴게 된다. **요즘엔 그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진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난 이제부터 이 구용법을 꼭 잊지 말고 실천할 것이다.

(2011. 5. 29. 강○○의 성찰일기 중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잘 되고 있는 자세와 아직 어려운 자세를 구분하고 있었고, 자신이 잘 안 되는 자세는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것은 구용법을 통하여 개인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 다. 7용: 기용속(氣容肅)

앞에 언급한 <성용정>은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조심하는 것이고, <기용속>은 숨의 모양을 엄숙하게 하는 것으로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안정된 호흡으로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을 수 있는 이 태도는 스스로 호흡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깊은 숨을 쉬는 활동

이 필요했다. 숨소리에 관한 7용은 다른 1용~6용의 여섯 가지의 태도와 다르게 눈으로 직접 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웠지만 숨소리를 가다듬었을 때 교실분위기가 차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기용속>을 실천하고 나서의 나의 느낌

- 내 거친 숨소리가 서서히 조용해지는 것 같다.
- 마음이 차분해진다.
- 나는 비염이 있어서 숨을 고르게 쉬기가 정말 어렵다. 하지만, 조용히 숨을 고르게 쉬다보면 기용속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2011. 5. 27. 몸공부법 <기용속> 학습 내용 모음)

라. 8용: 입용덕(立容德), 9용: 색용장(色容莊)

<입용덕>은 바르게 서있는 자세를 말한다. 그러나 한자의 뜻과 같이 단지 바르게 서 있다고 덕스러운 향기를 풍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단지 글자 속 구용법의 뜻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8용의 <입용덕>의 자세는 앞에서 배운 1~7용을 실천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바르게 서있는 자세가 풍겨 나온다는 사실을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였다. 그리고 바르게 서 있는 자세에 미소까지 함께 지었을 때,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색용장>에서 말하는 장엄하고 밝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 내가 생각하는 <입용덕>의 구체적인 자세

- 모든 걸 빼놓아지게 하지 말고, 올바른 자세로 하자.
- 표정은 밝게, 서 있는 자세는 바르게 하는 것
- 다리를 벽에 기대지 않고, 바르고 곧게 서 있는 것
- 이제까지 배운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것 같다.

■ <입용덕>과 <색용장>을 실천하고 거울로 나의 자세를 바라보았을 때

- 나는 다리가 잘 안 된다. 다리를 잘 해야겠다.(족용중)
- 지금까지의 일곱 가지를 지켜야겠다.
- 나는 이제까지 한 쪽 다리로 기대어 서서 그게 습관이 되었다. 그건 좀 나쁘다고 생각한다.

-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웃는 얼굴은 정말 예뻐다. 항상 미소 지으며 지내야겠다.
- 이제는 친구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난다. 그래서 기분이 더 좋다.

(2011. 6. 3. 몸공부법 <입용덕>, <색용장> 학습 내용 모음)

### #3\_ 입용덕을 배우고 나서...

서다입(立)을 배우고 나서 나의 태도가 바르게 되었다고 친구들이 말해줬다. 구용법은 나에게 바른 자세로 이끄는 것 같다. 점점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바른)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나의 희망이다. 구용법은 끝났지만 나의 구용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학교에서 배운 구용법으로 나의 구용법을 만들어서 나쁜 자세가 아니고 좋은 자세(바른 자세)로 만들어야겠다. 나의 구용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1. 6. 29. 손○○의 일기 중에서 발췌함)

### #4\_ 이 모습이 색용장이 아닐까?

제가 구용법을 배우며 달라진 모습을 적고 싶습니다. 저는 수용공을 배운 후 선생님을 보면 인사를 할 때 잊지 않고 수용공을 한 후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발이 움직이려고 하면 족용중을 생각하며 발을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색용장을 배우기 전이었지만 조금 어두운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웃는 모습을 보니 보기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용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급식실에서 식사할 때에는 구용지를 생각하며 말을 줄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구용법을 배우며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는 기분이 좋습니다.

(2011. 6. 3. 양○○의 일기 중에서 발췌함)

아이들 또한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입용덕>과 <색용장>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구용법은 가르치는 나에게도 신비체험이었다. ‘진짜 덕스럽게 서있는 자세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였다. 작년 구용법을 처음 접하면서부터 ‘덕스럽게 서 있기와 장엄한 얼굴표정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란 말이야?’라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다. 결국 이 고민의 해결책은 <입용덕>을 가르치게 될 때 나의 눈에 보였다. 그것은 각 일곱 가지의 자세를 바르게 실천하며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정말 덕스러운 모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색용장>의 장엄한 얼굴빛 또한 그 모든 자세가 된 바탕에서 마음을 담아 따듯한 미소를 했을 때 보였다. 그리고 보면 구용법은 아이들에게만 주어진 공부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에게도 새로운 공부였던 것이다.

### #5\_ 가르치는 자의 구용법 신비체험

높은 산을 올라가야하는 시작점에서는 ‘이걸 언제 올라가나?’라며 고민만 하게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산 정상까지 다다르게 된다. 그리고 그제서야 산은 발 아래의 멋진 풍경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이처럼 구용법을 처음 가르치려고 할 때 ‘과연 이 8, 9번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라며 고민을 많이 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8, 9번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정말 가슴이 뛰었다.

아이들에게 색용장을 설명하면서 “어른이 되면 40대, 50대가 되면 얼굴에 삶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음을 담아 우리나라는 미소와 밝게 웃어야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정말 또렷하고 밝은 기운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가슴으로 직접 자신들의 태도와 마음의 변화를 느끼는 모습이

주변의 친구들의 변화를 느끼는 모습이

다시금 반성하고 “수련”이라는 단어까지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감동이었다.

단지 구용법이라는 것이 태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태도를 힘입어 점점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 희망의 변화를 제시해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에게 항상 배움(學)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과 익힘(習)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닦아가야 함을 다시금 느낀다. 정말 감사한 오늘이다.

민아의 얼음 공주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지석이의 높은 툰의 목소리와 까칠한 말투가 달라지고 있다.

석우의 욱하는 태도가 하나하나 다듬어져 가고 있다.

승수의 어두웠던 얼굴이 밝은 미소를 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우리 반 아이들을 통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2011. 6. 3. 연구자의 교사일지: 구용법을 다 가르치고 난 후)

## 다. 구용법을 통하여 변화된 아이들의 태도

가르치는 내가 느끼는 만큼 아이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내용은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자신의 변화를 기록한 것이다. 아이들의 글 속에서 대장정의 구용법은 끝났지만, 아이들의 구용법 실천은 진행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6\_ 나의 변화 1

내가 구용법을 배우고 나서 달라진 점은 어디에서 있을 때 수용공을 꼭 한다는 것이다. **웬지 모르겠지만 수용공 자세가 편하다.** 그리고 구용지가 제일 어렵다. 말하는 게 너무 좋고 재미있어서 자꾸 수다를 떨게 된다. 구용지는 평생 실천하지 못할 것 같다...ㅋ

(2011. 6. 3. 양○○의 성찰일지 중에서 발췌함)

### #7\_ 나의 변화 2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와 ○○, ○○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발표를 할 때 짹다리를 하였는데... 6학년이 되고 나서 구용법을 배우니까 공수를 하고 짹다리도 많이 고쳐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방지게 짹다리를 하고 들어서 부모님께 **예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다.** 그러나 구용법을 배우고 공수를 실천했는데 부모님께서 **예의바르다, 착하다, 단정하다는 말을 해 주셨다.** 다음부터도 구용법을 실천하겠다.

(2011. 6. 3. 안○○의 성찰일지 중에서 발췌함)

다음의 내용은 우리 반 아이들 중 교사가 더욱 눈 여겨 보았던 아이들의 변화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철민이는 우리 반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이다. 그러나 학기 초에는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줄 때면 “그것도 모르냐?”라며 핀잔을 주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했을 때 옆 친구를 도와주어도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된다고 말하면 자기 일을 먼저 하는 아이였다. 물론 철민이의 행동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철민이가 주변 친구들을 조금만 더 감쌀 수 있는 마음을 지닌다면 더 큰 발전이 기대되었기 때문에 철민이에게 가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다. 시간이 흘러 6월이 되면서 변화하는 철민이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것은 6월 철민이와 기찬이가 짹을 하면서 철민이의 태도 중 기찬이의 학습을 많이 도와주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줄 때면 짜증을 내던 철민이에게서 천천히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단지 순간의 변화인지를 궁금해 하고 있었을 때, 7월의 짹공을 뽑았다. 그런데 체비뽑기를 하다 보니 철민이와 기찬이가 다시 짹이 되었다. 원래는 한 달 동안 짹을 했을 때, 서로 바꾸려는 친구들



이 많은데 철민이는 다시 기찬이와 앉겠다고 하였고 어김없이 기찬이를 잘 도와주었다. 확실히 학기 초와는 달라진 철민이의 태도를 보며 태도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까지도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웃음도 많고 학급의 분위기도 더욱 밝게 해주는 철민이가 고마웠다.

#### #8\_ 짝궁의 이야기(내 짝궁 기찬이)

5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지금은 내 짝인 기찬이가 구용법을 배우고 달라졌다. 욕을 많이 쓰던 기찬이의 입에서 욕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또, 기분을 좋게 하는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짜증이 나면 때리고 했는데, 이제는 말로만 하고 별로 때리지 않는다. 또 웃음이 많던 기찬이가 더욱 웃음이 많아졌다. 혼자 장난을 많이 하던 모습이 수그러 들었고, 이전보다 더 다른 사람과 협동을 하는 것 같다.

(2011. 6. 3. 철민의 성찰일지 중에서 발췌함)

#### #9\_ 짝궁의 이야기(내 짝궁 철민이)

5학년 때 철민이의 성격이 좀 짜증나게 하였는데 6학년이 되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성격이 좋아졌다. 철민이가 구용법을 배우기 전에는 자세가 비틀거렸는데 구용법을 배우니까 많이 달라졌다. 철민이가 5학년 때 웃음이 별로 없었는데 웃음이 많아진 것 같다.

(2011. 6. 3. 기찬이의 성찰일지 중에서 발췌함)

우리 반에서 변화된 친구의 모습 중 석우의 변화를 빼놓을 수는 없다. 아래의 글을 보면 석우 스스로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고, 주변 친구들은 매우 놀라울 정도로 석우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친한 친구이지만 석우의 안 좋은 태도를 싫어했었는데, 변화되는 석우의 태도에 '멋있다'라는 칭찬을 아낌없이 하는 모습을 보며 행동의 절제가 마음을 다스리고 친구들과 과의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든다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 다시 배우게 되었다.

#### #10\_ 석우 자신이 느끼는 석우

구용법을 해서 내가 달라진 점은 혼날 때나 어른들이 말할 때 나도 모르게 공수를 하게 되고 친구들에게 잘 성질을 안 낸다. 그리고 내가 봐도 입용덕을 잘하는 것 같다. 6학년이 되어서 3~4월 때까지는 옛날처럼 했는데 5월 달부터 내가 봐도 성격과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래도 성격은 다 고쳐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어쩔 때는 성질을 잘 낼 때도 있다. 앞

으로 성격을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1. 6. 3. 석우의 성찰일지 중에서 발췌함)

### #11\_ 석우를 바라보는 눈

4, 5학년 때 석우가 화도 잘 내고, 많이 화나면 욱도 썼다. 예상대로 6학년이 된 후에도 변한 것은 없었다. 6학년이 되고 며칠 뒤 구용법을 배웠다. **구용지 정도 배웠을 때 석우는 싸움을 했다. 그 후엔 변한 게 참 많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하고 화도 잘 참게 되었다. 난 이런 석우가 정말 멋지다.**

(2011. 6. 3. 김○○의 성찰일지 중에서 발췌함)

### #12\_ 석우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4, 5학년 때 잘 알던 석우가 좀... 4, 5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에도 약간 어른 앞, 선생님 앞에 설 때, 그럴 때를 보았었다. **하지만 6학년 4반에 들어와서 구용법을 배우니까 너무나 바뀐 것 같다.** 딱~ 보면 딱 다리도 짝다리에다가 좀 불량(?)한 태도를 보였었는데 이제는 양보도 잘 해주고 모든 친구들에게 잘 해준다. 석우를 지금 보니까 좀 위엄이 있다.(?) 바뀐 석우의 모습이나 태도를 보면서 나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해 보아야겠다.

(2011. 6. 3. 신○○의 성찰일지 중에서 발췌함)

다음은 아이들의 눈에 비친 다른 친구들과 우리 반의 변화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학급이라는 곳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여 만들어진 집단이다.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학급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렇게 형성된 학급 분위기는 다시 아이들의 모습에 영향을 준다. 우리 반을 가르치는 전담 선생님은 “4반 아이들은 개성이 정말 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아서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학급 안에서 스스로 협동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제일 멋있어요.”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스스로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긍정적인 학급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아래의 성찰일지를 읽다보면 친구의 변화를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구용법은 매일매일 변하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13\_ 친구와 나의 변화

저는 5학년 때 같은 반인 강○○ 친구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5학년 때는 강○○ 친구가 인사 때도 친구들이랑 놀 때도 별로 웃음이 없던 친구입니다. 그러나 **6학년이 된 강**

○○는 율곡 이이님의 격몽요결을 선생님이 몸소 가르쳐 주어 웃는 모습과 밝은 표정을 가진 친구로 몇 단계나 성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며 늙습니다. 이제 구용법을 마스터 했다. 드디어 예의 바른 어린이로 탄생할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수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대장정의 구용법을 마치고 구용법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이 예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행동을 배웠다.

(2011. 6. 3. 신○○의 성찰일지 중에서 발췌함)

#### #14\_ 우리 반의 변화

학기 초에는 우리 반 친구들이 조금 산만하고 지나치게 활발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안정해지는 것 같다. 특히 석우와 우리 반 남자애들! **축구할 때 싸움도 완전 짝 줄어들고 더 온화(?)해진 것 같다. 주먹 안 쓰고 그냥 웃어 넘기는 일도 많아진 것 같다. 우리 반 여자 애들은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더 많아진 것 같다. 싸워도 그 다음 날 바로 까먹고 친해진 적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반은 구용법의 도움을 확실히 받았다고 생각한다. 율곡 이이 선생님 감사해요.+.+♡

(2011. 6. 3. 나○○의 성찰일지 중에서 발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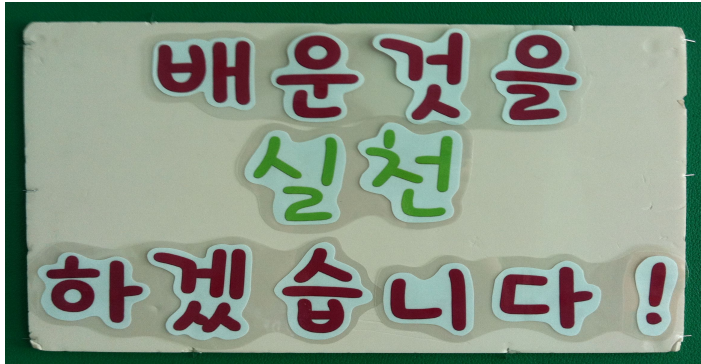
어느 덧 구용법의 아홉 가지 자세를 다 배웠다. 자세를 배우는 동안, 아이들은 자신의 변화된 태도를 느끼고, 친구의 변화된 태도에서 감동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우리 반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모여서 긍정적인 학급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억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푸른 바닷가에 가면 바다 향기가 풍기듯이 구용법을 통한 아이들의 바른 태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퇴계는 진정한 군자와 올바른 학문의 길에 대한 비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군자란 깊은 산 속의 야생난초와 같은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면서도 난초 자신은 그것이 자신의 향기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 출처: 퇴계탄신 500주년 특별기획 퇴계: 제1편 세계, 퇴계를 주목하다(2001. 10. 10. KBS방영)

### 3. 가을 이야기\_교실현장에서의 긍정적인 효과



[그림 III-2] 우리 반의 마무리 인사: 3월에는 어색해하더니만  
이제는 바른 자세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 가. 마음 속에 '사람됨의 나무'를 심자

4월에는 5일에 식목일과 20일에 장애인의 날이 있다. 그래서 매년 식목일이 다가오면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우리는 눈으로만 보이는 장애를 크게 여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많단다. 즉, 서로 미워하는 사람, 자기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말이야.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전에 내 마음은 어떤지 꼭 살펴보아야 해. 내 마음은 자갈밭인지 가시밭인지 아니면 비옥한 땅인지 말이야.

매년 위와 같은 말과 함께 아이들의 눈을 감게 하고 자신의 마음 밭에 씨앗을 하나씩 심어서 물도 주고, 햇빛도 비추어서 잘 키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씨앗은 아이들에 따라 사랑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배려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올해는 위의 이야기와 내가 읽은 책 내용을 소개하고 다 같이 '사람됨의 나무'를 심자고 하였다. 『꿈이 성공하는 나라』의 책 내용에서는 사람에게 '나'라는 관념이 생기면 '너'라는 관념과 '그'라는 관념이 생겨 서로 경쟁 관계가 되고 경쟁심이 생겨난다고 했다. 그리고 이 경쟁심을 욕심이라고 표현하였다(이기동, 2004: 316-318). 책의 내용처럼 학교도 어느덧 서로 경쟁을 하여 '한 줄 세우기'를 하는 경



우가 많다. 아이들에게도 시험이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욕심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늘은 자신의 욕심을 줄이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됨의 나무’를 심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듬고, 더욱 바른 태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였다.

2011. 04. 05. 화	식목일이네.... 사람됨을 지닌 사람나무를 심자~!!!
-----------------	--------------------------------

나의 사랑~♡ 우리 아들, 딸들~~~

어느덧 벌써 4월이 되었네.^^ 하루하루가 재미있다. 물론 공부를 하려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여서 4월도 기대된다. 4월 첫 주에는 요리실습으로, 이제 너희들이 기대하는 수학여행도 4월에 있다~!! 우리 함께 멋진 추억을 담아 보자.

<구용법>을 하는 이유...? 생각해 본 적 있나?

홍수나 가뭄, 황사 등을 막아주는 나무를 식목일에 심듯이 올해 2011년 동안 우리 반에서는 <진정한 사람됨을 지닌 사람나무>를 심어볼까 해~~ 오늘 식목일에 그 사람됨의 나무 묘목을 우리 반 친구들 마음 속에 하나하나 심었으면 해~ 그리고, 잘 커야겠지? 나만의 진정한 사람됨을 지닌 사람나무로 말아야.

(2011. 4. 5. 연구자가 아이들의 일기장에 쓴 내용)

위에서 언급한 ‘사람됨’을 나무로 비유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나무를 키우는 방법으로 접근하였을 때 훨씬 이해가 빠르기 때문이다. 아래의 일기에서 우리 반 한 친구는 ‘진정한 사람됨’을 자신만의 언어로 정의하고 있다. “진정한 사람됨이란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이다.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 많은 정성을 쏟듯이 ‘나’라는 나무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1\_ 내 마음에 나무를 심자

오늘 선생님께서 내주신 ‘진정한 사람됨을 지닌 사람나무 심기’를 주제로 일기를 써보려고 한다. 나는 내 마음에 ‘○○의 나무’라는 이름으로 나무를 심었다. 꽃삽으로 흙을 파고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매일매일 물을 충분히 주고, 불필요한 잡초들을 뽑아준다. 1달 후, 2달 후, 3달 후. '○○의 나무'는 크고 든든한 사과나무가 되어 있다. 나는 내 마음에 사람 나무를 심고 나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면, **진정한 사람됨이란,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어느 한 목표를 가지고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됨의 나무를 심을 것이다.

<예시 1> 학생 일기 자료

제목: 사람됨을 지닌 사람 나무를 심자!

저는 학교에서부터 키우기 시작한 사람됨을 지닌 벚꽃나무 모퉁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람됨을 지닌 내 마음속 벚꽃나무를 잘 키워서 나의 마음도 사람됨을 지니게 하고 싶습니다.

모조름 황사가 불어 나의 묘목이 시든거나 꺾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사람됨을 지닌 나의 벚꽃나무가 사라지면 나의 마음속에서 사람됨이 사라지니까요... 안 시들면 더욱 좋겠지만 꺾어지거나 시들어도 괜찮습니다.

또 심으면 되니까요. 지금은 마음이 넓지못해 사람됨을 지닌 나무를 하나밖에 심을 수 없지만 하나의 나무를 잘 키워서 사람됨이 내 마음속에 자리잡을 때마다 마음은 점차 넓어져서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겠지요.

아직 사람됨을 지닌 나무를 심지 못한 친구들에게 사람됨을 가득 지닌 나무를 선물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저는 저의 사람됨을 지니게 해줄 나무에게 햇빛을 많이 비추어주고 물도 주고 옆에 피는 안 좋은 잡초들도 뽑아주며 열심히 나의 아름다운 벚꽃나무를 키울 것 입니다. 열심히 지켜봐 주세요!

(2011. 4. 10. 양○○의 일기)

## 나. 반 대항 축구대회

“과연 욕이 없는 아이들의 세상이 이루어질까?”

내가 아이들에게 바른 언어 사용을 강조하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욕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100%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세상이었으면 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6월의 이 일은 나에게 너무나도 행복했던 일이었다.

6월이면 우리 학교에서는 반 대항 축구대회를 실시한다. 아이들은 우리 반 모두가 참여하는 경기이고 다른 반과의 시합이라 대진표를 뽑는 순간부터 긴장의 연속이었다. 각자의 위치와 전략을 짜고, 축구를 못하는 여학생들의 위치와 역할을 알려주고 경기에 직접 뛰지 않는 친구들은 응원도구를 만드느라 교실은 축구시합이 있는 날까지 아주 활기가 넘쳤다. 드디어 우리 반 축구시합이 있던 날, 정말 너무 더운 날이라 운동장을 뛰는 아이들의 얼굴은 빨갛다 못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관람하는 우리도 공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아주 많았다.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쉽 없이 눌렀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뻐 보였다. 비록 그날 경기는 졌지만 우리는 서로 격려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 주 아이들의 일기 속에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다. 다른 아이들에게 아래의 두 친구의 일기를 읽어 주면서 구용법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칭찬해 주었다. 나도 반 대항 축구대회가 있던 그날, 아이들의 변화 모습을 느꼈는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다른 아이들도 변화의 모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뿌듯했다. ‘욕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묘해 오는 아이들의 느낌’이라는 표현을 보며 아이들의 모습 속에 구용법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다.

### #2\_ 반 대항 축구

오늘 2반과 우리 4반의 반 대항 축구 준결승전을 하였다. 우리는 처음에 부전승으로 올라와서 하는 첫 경기였다. 우리 반 전반, 후반 아이들도 너무 잘했고 응원단도 너무 잘했는데 우리 반은 1대 0으로 완전 아쉽게 졌다. **그래도 아쉬운 것은 없었다. 이번 축구의 목표는 단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욕 안 쓰고, 협동심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축구가 끝나고 재량 영어 시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음료수를 사주셔서 너무 좋았다. 오늘은 아쉽고도 즐거운 날이었다.

(2011. 6. 23. 김○○의 일기중에서 발췌함)



<예시 2> 학생 일기 자료

2011년 6월23일 목요일

제 목: 반대항 축구 대결 (2반 VS 4반) <sup>→우리반!!</sup>

오늘 날씨는 정말 정말로 따웠다 30°C 나 된다니!! 하지만 지금 이 날씨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다. 앞으로는 이 기온보다 더 높아질 것이니 인내심을 길러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Anyway!! 오늘은 우리반(4반)과 2반의 반대항 대결이 있었다. 3교시에 경기가 시작되었다. 근데 우리 여자 5명은 골대 앞에서 장승같이 서있었다. 2반에 임형민이라고 전직 축구부(?)가 으면 여자 애들은 다 피하기 일쑤였다. (공이 무척워~) 결국 우리는 전반에 예상치 못한 위로날아오는 골에 결국 1점을 내주고 전반전은 끝났다. 끝나는 동시에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내심 후반전은 기대가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반 후반전에는 잘하는 애들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골은 넣을 것 같았지만 역시 불안불안했다. 그리고 우리반은 골넣는 기회는 진짜 도끼~ 많았었다. 근데 골이 골거나, 짤았거나, 먼저 골때가 잡거나 하는 바람에 아쉬운 경우가 좀 많았다. 그리고 끝나버렸다 ㅠ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우리반 거리가 목을하거나 불평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의 태도가 맘에 들었는지 음료를 나눠 주었다! 앗은 진짜 기분이 묘하다.. 반대항은 쟁는데 언제리 부딪힌 건지..

(2011. 6. 23. 김OO의 일기)



### 다. 구용법 집중 실천기간

구용법에 관한 서명석(2005)의 연구에서 제시한 <구용 성찰 일지>를 교실에서 조금은 변형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구용 성찰 일지>는 1일부터 9일까지 일용날~구용날로 해당 날을 지정하고 매일 자신의 하루를 살펴보고 난 후, 10일째 되는 날에는 1일부터 9일까지 실천한 구용의 내용을 종합 반성하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다.

---

구용 성찰 일지 양식

---

1. 오늘은 (            )의 날
  2. 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3. 실천 내용
  
  4. 성찰 내용
  
  5. 오늘의 점검 및 내일의 약속
- 

\* 출처: 서명석(2010). 유가 몸공부법의 존재위상: 『격몽요결』의 구용법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24(3), p. 149.

우리 반에서는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구용법 집중 실천 기간>을 정하고 아이들과 실천을 다짐하였다. 칠판에 그날에 해당하는 구용법을 제시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기간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있어서 시험에 마음을 많이 쓰는 기간이었다. 그렇지만, 우리 반의 마지막 인사인 “배운 것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 #3\_ 눈빛만 봐도 웃음이 나와요

오늘은 구용법 집중실천 기간 중 <목용단>을 하는 날이다. 남자 아이 셋이서 서로 무언가에 화가 나 있었다. 의견이 맞지 않아 쉬는 시간에 부딪히고, 수업시간에 화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다른 날의 나였으면 당장 훈계부터 들어가고 이미 화를 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세 명의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 <목용단>으로 쳐다보기를 요구했다. 역시, 목용단을 하게 되면 우리 반 아이들은 자연스레 웃음을 자아낸다. 서로 참을 수 없는 웃음을 내보이며 상황 종료! 어느덧 구용법은 우리 반 아이들과의 약속이 되어 버렸다. 잘

못한 아이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구용법이 우리 반에서 약속이 되고, 몸에 베인 습관이 되니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편했다. 역시 <구용법 집중실천 기간>은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2011. 7. 13. 교사 일지 중에서 발췌함)

처음으로 적용한 <구용법 집중 실천 기간>은 아이들의 변화와 함께 나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단지 구용법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이들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장치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번 7월 <구용법 집중 실천 기간>을 마무리하며 7월 20일에는 방학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구용법 성찰일지와 함께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글을 같이 받았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한 학기 동안의 추억이 담겨 있었고, 변화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실천일지 중에서 민아의 일지가 눈에 들어왔다. 작년 5학년 때 민아의 답임을 하셨던 선생님도 민아가 6학년이 되어서 많이 밝아졌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다. 교실에서 항상 민아에게 강조하는 ‘방삭방삭 웃기’는 내 입에서도 자꾸 말하고 주변 친구들도 민아를 자꾸 웃겨주는 것 같았다. 지금도 구용법 실천을 어려워하는 민아이지만 그 아이의 태도와 표정이 많이 밝아졌고, 앞으로 더 밝아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 #4\_ 얼음공주 민아의 이야기

5학년 때는 구용법을 몰라서 짝다리도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구용법을 알았기 때문에 건방지지 않게 보이는 것 같다. 앞으로 방학 때도 구용법을 잊지 않고 꼭 실천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이 구용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구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두용직과 목용단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턱을 많이 괴서 얼굴도 기울었고, 원래 무표정으로 쳐다보면 췌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구용법이 좀 힘들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구용법의 뜻을 생각하고, 구용법을 실천할 것이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할 것이다.

(2011. 7. 13. 민아의 성찰일지: 구용법 집중실천 기간을 보내고 나서)

<예시 3> 성찰일지: 구용법 집중 실천기간

7.11(월)~7.19(화) 구용법 집중 실천기간

솔직히 너희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구용법 집중 실천기간에는 선생님이 느낀게 많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재미있었지? 마지막 통지표도 받고, 교실청소도 말끔히하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나의 학교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구용법 집중 실천기간에 있었던 일 /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2011년 7월 20일 수요일	6학년 4반에 과학천재
나는 구용법 집중 기간에 어떤일이 있었다.	
토요일 날 할머니 집에 가보니 사촌동생이 있었다.	
너무 반가워서 같이축구를 하였다.	
축구를 하다 갈증이 심해 침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빨리러는 차나, 구용법 중 성용정이 생각났다.	
그래서 대신 물을 마셨다.	
이처럼, 구용법이 무의식 중에 외워 졌고, 무의식 중에 생각이 났다.	
이렇게 구용법이 나도 모르게 나와 가까워졌다.	
	생각해보면, 제사 때에도 공수도 안하고
	밭을 가만히 안하던 내가 무의식
	중에 수용공(공수), 죽용중이 실천이
	되 있었다.
	그러면서 전에는 1권천기만 하던 마음
	이 점점 구용법을 배우면서 정면
	해졌다.
	선생님! 구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
요, 그학기에 꼭 경훈하서 부피	
싸야하해요!	

(2011. 7. 20. 정○○의 구용법 집중 실천 성찰일지)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의 반응, 교사의 반응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반응을 볼 차례이다. 구용법이 아이들의 학교생활에서는 많은 변화를 이끌었는데 가정에서는 어땠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가정으로 보내는 편지를 준비하였다. 이 편지의 첫 번째 목적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구용법의 몸공부를 가정에도 알려서 학부모와

함께 더욱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구용법을 통해 변화하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편지를 전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니까 우편배달의 역할은 꼭 해라”라고 말하고 학부모에게는 회신서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회신서를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들으면 더욱 좋지만, 이 편지의 첫 번째 목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가정으로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 반 1/4정도의 부모님 회신서를 받을 수 있었다. 회신서를 보면 내 아들, 딸들이 6학년이 되어 더욱 믿음직스러워졌다는 학부모도 있었고, 예의가 바른 친구가 더욱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한다고 적어서 보낸 학부모도 있었다. 부모님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구용법을 통한 몸공부가 제 3자의 시선인 교사에게도 학부모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의 편지 중에는 선생님에게 보내는 글이라 좋은 내용으로만 적어서 보낸 부분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자녀들의 성적을 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동의 모습을 살펴본 내용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학부모가 보낸 편지를 읽던 중 가장 가슴을 울렸던 부분이다.

#### #5\_ 기찬이 어머니 회신서

그리고 보니 언젠가 “몸은 이렇게 하고 숨은 이렇게 쉬어야 한대요”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구용법을 배우고 와서 그랬던 거군요.

(2011. 7. 19. 기찬이 학부모의 편지 중에서 발췌함)

“몸은 이렇게 하고 숨은 이렇게 쉬어야 한대요”

아이들은 이미 자신의 몸에 구용법의 자세를 체화시키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용법을 전파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성찰일지와 부모님의 편지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했다.

<예시 4> 학부모 회신서

부모님이 바라보는 우리 아들, 딸!!

6학년이 되면서 혹시 걱정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런 걱정 사이에서도 한 학기를 보낸 아이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작은 변화이지만 예절이나 몸가짐, 아이들의 표정, 마음의 변화를 보신 부분이 있다면 적어서 보내주세요. 부모님의 생각이 담긴 내용이라면 어떤 글이라도 좋습니다.

1 학년을 입학할 당시 많이 엉덩이 속에서 또각또각 속에서  
 뉘뉘던 시간이 벌써 초등과정의 마지막 학년이  
 접어들었네요!'  
 어찌 보면 가장 인생에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라  
 어렵고 목상할 때도 부모 입장이나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이야 아랑가 자라 생각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행동도 예전같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언어재능이 많이 너무 기뻐야 할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도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차근차근하게 어휘부터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언어이다 보니. 문어를 많이  
 사용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의  
 <격용요결> 과 같은 가르침은 자습시대에 너무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흐뭇합니다. 가르쳐주세요.  
 하나씩의 만수무강한 가르침을 통해 배워가는 학교에서도  
 많은 한학기들. 잘 지도해 주신다면 더 많은  
 풍요리라 생각합니다.

<격용요결 속 구용법>  
 조선시대 아이들의 글을 깨치기 위해서는 <천자문>이 그리고, 아이들이 지켜야 하는 바른 태도를 가르칠 때에  
 는 <소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윤곡 선생님이 우리 아이  
 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격용요결>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구용법>은 그 책 속에 나  
 오는 바른 행동의 9가지 실천사항입니다.

(2011. 7. 18. 문○○의 학부모 편지)

## 라. 배운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10월의 <구용법 집중 실천기간>은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1학기의 배운 아홉 가지의 자세를 다시 인식시켰다. 2학기가 되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조금은 흐트러졌던 몸공부가 <구용법 집중 실천 기간>을 함으로써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역시 몸공부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위 제목인 ‘배운 것을 실천하겠습니다’는 우리 반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외치는 문구이다. 이번 <구용법 집중 실천 기간>을 하고 난 후 쓴 성찰일지에는 6학년이 되어서 열 달 동안 자신이 배운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였다. 다음은 아이들이 적은 내용들이다.

### #6\_ 신기한 일들

나는 6학년이 되어서 매우 많은 것을 배웠다. 첫째, 친구들과의 우정이다. 우정을 어떻게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지 6학년 초반까지만 해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애들이랑 함께 재밌게 놀아감으로써 어떻게 함께 어울리는지 알게 되었다. 둘째, 구용법이라는 것을 배웠다. 구용법은 족용중, 수용공, 목용단 등등이다. 이것은 율곡이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하는 것이다. **구용법을 통해 거의 요즘 나의 자세는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다.** 셋째, 축구를 할 때는 팀웍이 반드시 필요하다. 팀웍을 실천함으로써 서로 간의 축구가 좋아지고, 점수도 좋다. 확실히 개인플레이를 하면 뺏기는데, 이제는 패스가 있으니 점점 더 좋아진다. 나는 오히려 축구를 이렇게 하니 더 흥미로워지고 재미있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친구들이나 우리 6학년 아이들에게 배웠다니 참 신기하다. 앞으로는 더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수업시간에도 더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

(2011. 10. 30. 신○○의 ‘배운 것을 실천하겠습니다’의 내용 중 발췌함)

### #7\_ 6학년이 되어서 내가 배운 것

나는 6학년이 되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배웠다. 처음 6학년이 되고, 처음 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웃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학교에 오면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걸로 난 학교에 와서 웃음을 배웠다. 내가 배운 또 다른 것은 구용법이다. 구용법을 배우고 나서 마음가짐도 달라진 것 같았다. 그리고 구용법을 배우면서 항상 한 다리로 기대어 서는 나의 버릇도 고쳐져서 좋았다. 그 다음은 ‘믿는 만큼 변한다’라는 말을 배웠다. 지금도 잘 믿는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잘 믿어야겠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친구들의 특성도 알았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다 보니 벌써 10월이 다 지나간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니 앞으로도 시간은 빨리 흘러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순간순간 지나가다보니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하였다. 나는 앞으로 남은 6학년 생활동안 볼 것도, 배울 것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생활이 끝나서 지금 만난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동안 열심히 남은 것을 배우는 것이 지금의 내 목표이다.

(2011. 10. 30. 최○○의 ‘배운 것을 실천하겠습니다’의 내용 중 발췌함)

## #8\_ 얼음공주 민아의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경희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 나도 친절하게 하는 것을 배웠고, 주민이가 나를 웃겨 주어서 많이 웃으면서 6학년을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수경이가 나에게 웃으면서 도와주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친구들에게서 많이 배웠지만 나는 친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없는 것 같다. 나도 이제는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생겨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주민이가 가르쳐 준 웃음, 경희이가 가르쳐 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수경이가 가르쳐 준 다른 사람을 웃면서 도와주는 것을 열심히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2011. 10. 31. 민아의 ‘배운 것을 실천하겠습니다’의 내용 중 발췌함)

교실 속에서 아이들은 단지 교사에게만 배우고 있지 않았다. 1년 동안 아이들이 배웠다고 표현하는 것에는 교사에게서 배운 교과 지식도 있었지만, 친구들의 태도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었다. 몸은 상대방과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듯이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몸의 자세, 표정, 말 등으로 표현한다. 이렇듯 구용법은 아이들의 마음을 통제하는 장치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구용법을 실천하면서 스스로 습관화하고 그러한 바른 태도를 직접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전해주고 있었다. 이러한 우리 반 아이들의 변화는 긍정적인 학급 분위기와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 4. 겨울 이야기\_교사의 깊은 성찰

우리는 우리가 교사라는 점을 고민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때에는 사회가 교사들을 고운 시각으로 보지 않을 때 한숨의 시각으로 고민하기도 하고, 진정 아이들에게 보람을 느낄 때 행복의 시각으로 고민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교사! 선생님은 어떤 이들을 말하는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며 어떤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삶 속에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과 의문은 교사라는 이름을 가진 모두에게 주어진 ‘스침의 행복’이 아니라, 항상 고민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교사에게만 주어지는 ‘진정한 인연(因緣)의 행복’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긴다.

(2011. 3. 21. 연구자의 교육대학원 수업 스터디 페이퍼 중에서 발췌함)

가만히 앉아 되돌아보면 일 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필름처럼 지나간다. 처음 구용법을 교실에 적용하였을 때 아이들의 달라지는 태도를 보면서 ‘정말 효과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내 눈에도 인사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 보였고, 구용법을 배우고 나서 직접 실천한 일기를 확인하는 날에는 아이들의 바른 태도를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나 또한 뿌듯한 하루 하루였다. 그러나 구용법의 교실 적용이 항상 순탄하게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 한 예로 새로운 2학기가 된 시기였다. 학교생활은 어김없이 바빴다. 누군가 학교생활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돌아간다고 말했는데, 2학기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추석을 지나 운동회를 하고 나니 훌쩍 10월이 되었다. 이쯤 되면 6학년은 생활지도가 어려운 시기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반도 6학년 2학기가 되면서 남학생 여러 명이 모여서 다니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그 친구들 속에는 여럿이 함께 있어서 1학기 때보다 활발해진 모습을 한 친구도 있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도 있었다. 그러나 남자 아이들이 여럿 모여서 다니다 보니 자신들이 느낀 즉흥적인 나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나쁜 감정을 바르게 해소하는 방법을 몰라 몇 건의 사건이 일어났다. 몇 가지 예로 친구가 전한 말에 화가 나서 싸움이 일어났고, 호기심에 시작한 장난이 커다란 사건으로 커지기도 했다. 다음 사건은 그동안 우리 반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나를 깊은 생각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수요일 날 저녁에 학교 운동장에 놀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형들이 학교 문의 아래 부분을 소리 나게 차고 있었다. 형들이 가고, 나와 ○○가 가 보았다. 약간 금이 가 있었다. 나는 발로 다시 찼다. 3번 정도 차니 부서졌다. 그리고 ○○가 옆에 것을 차니 그것도 부서졌다. 그리고 우리는 운동장에서 놀다가 교무실 옆 CCTV를 깨자고 말했다. 하지만 CCTV가 너무 높아서 그 아래 유리창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돌을 던지기로 했다. 유리창은 깨졌고, 우리는 도망갔다. 그리고 혹시 한 사람이 걸려도 누구랑 했는지 말하지 않기로 했다.

(2011. 10. 14. 김○○의 반성문 중에서 발췌함)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아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목요일에 확인된 깨진 출입문의 플라스틱과 유리창을 수리해 놓았더니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똑같이 그 문과 그 옆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학교에서는 동일한 일이 일어나서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를 돌려보았다. 확인한 결과, 그 일을 한 사람은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반 두 아이와 5학년 한 아이였다. 한 번도 아니라 다음 날 똑같은 일을 한 아이들을 보며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 반은 내가 잘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충격이었다. 2학기가 되어서 일어난 일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영화의 필름처럼 흘러 지나갔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니?”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아이의 말에 기가 막혔다. 아이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기 위해 저녁까지 학교에서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오고갔다. 구용법의 실천을 통해 구용법의 효과를 논문으로 정리하던 나에게 오늘 이 사건은 아주 큰 혼란을 주었다.

동료 교사: 그 아이는 왜 그랬대?

나(연구자): 아이도 잘 모르겠대. 집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처음에는 호기심인 것 같은데 이튿날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어.

동료 교사: 정말 알 수 없네.

나(연구자): 근데, 이제 논문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구용법의 효과를 쓸 수가 없겠어. 마음에 찔려서 좋은 내용만을 쓸 수는 없잖아.

동료 교사: 왜 그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의 효과가 있잖아.

나(연구자): 요 근래 우리 반에 일어난 문제들이 하나씩 떠올라서 말아야. 근데 2학기 들어서 제대로된 구용법을 지도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중이야.

(2011. 10. 14. 연구자와 동료 교사의 대화 중에서 채록함)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2학기 아이들의 행동 변화가 1학기 동안 그들의 마음을 잡아준 몸공부의 장치가 소홀해진 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2학기가 되어 구용법 지도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소홀해진 틈을 타 아이들의 거친 마음이 다시 살아난 건 아닌지 다시 고민에 빠진다. 교사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풍경을 보고 그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다. 이번 우리 반의 일은 그동안 있었던 몸공부인 구용법의 소홀함도 크게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바른 마음을 유지하는 몸의 장치가 무너지면 어느덧 숨어있던 아이들의 거친 마음이 다시 머리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았다. 지난 10월 사건 이후, 교실에서는 10월, 11월 구용법 공부를 아이들과 재정비하였다. 그러면서 거칠었던 남학생의 태도도 다시금 잠재우게 되었고, 바른 자세를 실천하려는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 모습을 통해 그 동안 구용법 자세를 통한 몸공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자라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몸의 공부가 마음을 다스리고, 그런 마음이 다시금 몸으로 나타나는 교육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의 바른 태도는 조금씩 다져지고 있었다. 그러나 식물이 물을 먹고, 햇빛을 받아야 자라나듯이 몸공부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알았다.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으로 큰 둔덕을 하나 넘은 것 같다.

일 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된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5년 동안 내가 담임했던 6학년 아이들과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스쳐지나간다. 담임인 나와 부딪혔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과 왜 힘들었는지, 다음에 이런 아이를 만나면 다르게 행동해야지’라는 나 자신도 반성을 해본다. 물론 올해의 아이들을 보면서 구용법이라는 태도의 규칙이 교사와 아이들 모두에게 잘 흡수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단지 태도의 규제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은 과욕이라고 생각한다. 구용법은 13세의 6학년 아이들보다 좀 더 어린 8~9세의 저학년 아이들에게 적용했을 때, 더욱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구용법은 반복하여 실천되어야 하며 그 실천이 몸

에 배이는 체(體)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올해 우리 반 아이들이 이만큼 스스로 바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잡아준 것이 구용법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나와 함께한 아이들을 통해 지금의 교사인 '내'가 만들어졌듯이 2011년 구용법을 통해 몸공부를 가르쳤다는 것은 나의 교육활동에 하나의 큰 산을 넘은 것과 같다. 나에게 아이들은 힘들다고 놓아 버릴 수 없는 존재이고, 일 년 동안 나와 함께 생활하는 행복이기에 그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됨의 교육'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다짐해본다.

## IV. 논의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고 죽은 뒤에도 인간으로 기억된다.

- 박종천, 2011: 29

인간(人間)이라는 말 속에서 나타나듯이 사람은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등으로 가정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유교 전통에서는 예(禮)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예는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위를 의미한다(박종현, 2011: 21).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차이를 무시한 통제가 아니라, 각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사회 속 교사에게 주어진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교사는 교사와 교사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학교라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학생들에게 학생에 맞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 1. 전(前)\_몸공부의 필요성

오랜만에 지난 다이어리를 열어보게 되었다. 2001년, 2002년, ... , 2010년, 2011년 모든 다이어리 속에는 내가 맡았던 아이들의 특성, 상담내용, 매달 아이들과 함께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빼곡하게 쓰여 있었다. 그리고 다이어리 한 부분에는 아이들과 부딪혔을 때의 나의 고민, 동료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느낀 점, 연수를 받으며 감동받았던 부분들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마치 나는 거꾸로 가는 시계를 가진 것처럼 다이어리에 적힌 이야기 속으로 폭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크게 또는 작게 매년 아이들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좀 더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연수를 받았고, 연수 내용을 실천하였으며 그 실천으로 기뻐던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반항하는 아이들과 부딪혀서 고민하고 좌절하는 나의 모습도 있었고 단지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만날 아이들을 위해 다짐하는 나의 모습도 있었다. 이 흔적들이 내가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 매년 고민을 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많은 선생님들은 고민을 한다. 아이들과 잘 소통하기 위하여, 좀 더 활동적인 수업을 하기 위하여, 교사와 아이들 모두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하여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수에 참여하기도 하고, 스스로 연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민은 교사들에게 새로움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고민에 교사들은 힘들어하기도 있다. 이는 점점 우리 사회가 점수에 민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점수만을 강조하는 현실 때문에 학생들은 점점 개인주의 성향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평소 우리가 말하는 '인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표현을 실감하게 한다. 다음 기사는 2011년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교육계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아이들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빈발해 우리 가슴을 매우 아프게 한다. 이 사건들을 개인적 차원, 예외적 사례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사회의 책임이 너무 크고 무겁다. 최근 발생한 경우만 보면, 이른바 '왕따'를 견디지 못

하고 자살로써 괴롭기만 한 세상과 결별했다. 대전의 여고생 A양은 일부 학생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따돌림 당하며 무척 힘들어했다고 한다. 사고 이틀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담임교사를 찾아갔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지난 2일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대구의 중학생인 B군도 또래로부터 당하는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이 학생은 심하게 얻어맞는 것은 물론 돈까지 빼앗긴 채 온갖 모욕을 당하는 등 수난도 겪어왔다고 한다. ...<중략>... 아이들의 모습은 곧 어른들의 사회상이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을 숨김없이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무한 경쟁, 약육강식, 승자독식이라는 정글법칙은 사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 현장에까지 적용되면서 수많은 탈락자와 좌절학생을 낳고 있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바처럼 40대와 50대 가구의 절반가량이 맞벌이에 내몰리면서 아이들은 따뜻한 가정의 품에 안겨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학교를 떠나면 학원이라는 울타리로 또다시 들어가야 하거나 홀로 남아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등 사람이 아닌 사물과 마주 대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교육 역시 본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난 채 입시기관이 돼가고 있다. 대전의 A양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조차 궁지에 몰린 학생들에게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다. 부모와 교사가 살피지 못하는 학생들이 비극의 길로 내몰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연합뉴스> 2011년 12월 23일)

위의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대 가정, 학교, 사회에는 여유가 없다. 주변을 돌아보며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여유도 없고, 잠깐 쉬면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야만 하는 분위기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단아버린 채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 하는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내가 마음을 다해 불렀을 때 상대방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의 통로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려 해도 상대방이 비뚤어진 태도로 받아들인다면 그 좋은 의미가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리학 공부의 목적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유지하기 위해 몸의 통로와 마음의 통로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의 활동들은 초등학교 나이에 먼저 이루어져야하는 몸공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몸공부는 틀에 맞추는 통

제적 형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맞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바른 몸가짐의 체득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합창단 모두의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리를 존중하고,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 2. 중(中)\_몸공부의 적용

아래의 기사 내용처럼 사회 곳곳에서 생활지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교육제도 속에서는 승진 점수나 교사 임용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연일 생활지도에 관련된 기사를 내뿜고 있으며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어느 덧 생활지도가 어려운 고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생활지도부장 교감 승진 우대 서울, 학교폭력 종합대책 회의서 논의

서울에서 교감 승진할 때 생활지도부장 경력이 있으면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잇따른 학교폭력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생활지도부장을 승진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때 생활지도부장 경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교사로 임용될 때 '위기학생 상담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임용시험 응시자가 교대나 사범대 재학 중 학교폭력 상담 봉사활동이나 위기학생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면접고사에 정성평가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교대나 사범대 재학 시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해 교사들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교과부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교대·사범대 교육 과정에 학생 생활지도, 학교 폭력 대처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논의된 바 있다.

(주간교육신문, 2012년 1월 9일자)

이렇게 어려워진 학생들의 생활지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실 현장에서 각각의 자신에 맞는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는 한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율곡의 『격몽요결』의 내용 중 몸공부와 관련된 구용법을 교실현장에 적용하였다.

구용법의 적용은 발, 손, 눈, 입, 머리의 모양을 바르게 하고 목과 코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지런히 하며, 바르게 서있는 자세와 밝은 얼굴 표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지니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다음으로 구용법의 습관화 단계는 아이들에게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하게 하였고 이 과정을 통하여 친구들과의 교우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급 전체로 영향을 미쳐 항상 웃음이 넘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들의 행동으로 나타났다.

예나 어머니: 우리 예나가 6학년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5학년 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며 작년 선생님과 아이들이랑 잘 안 맞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나(연구자): 우리 반 아이들끼리 서로 재미있게 잘 어울려서 예나의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잘 나누는 것 같아요.

예나 어머니: 일단 선생님이 교실 안에 커다란 울타리를 만들어서 지켜보아 주시니까 아이들도 그 안에서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연구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항상 우리 반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요.

예나 어머니: 그리고 예나가 6학년이 되어서 달라진 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엄마와 대화를 할 때 나를 바라보는 눈빛과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화를 나누기 전부터 예나의 빼딱한 자세를 지적하면서 시작했는데, 일단 예나가 바르게 엄마를 대하니까 서로 대화하기가 편했어요.

나(연구자): 아! 어머니도 느끼셨어요? 제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생활지도를 하다보면 잘못된 사건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선생님과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나 어머니: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니 나와서 관계도 참 많이 달라지게 되어서 올해 뿌듯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선생님.

(2011. 12. 21. 학부모와의 대화 중에서 채록함)

예나 어머니와 상담을 하고 찬찬히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다. 구용법을 통한 바른 태도의 실천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갖게 해주며 또한 스스로에게 뿌듯한 마음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오해나 불편한 마음을 줄여주어 더욱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우리 반의 수업분위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나(연구자): 우리 반 아이들과 1년 동안 국악 수업 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동료 교사: 아니에요. 4반 정도면 편하죠. 원래 국악 수업이란 것이 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 없는 거라서 중간 중간 집중시키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4반은 일단 수업이 시작될 때 바르게 준비하고 있고, 공수자세로 인사하는 모습이 나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 수업을 기분 좋게 시작하게 되는걸요.

(2011. 12. 22. 연구자와 동료 교사의 대화 중에서 채록함)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용법은 자신 스스로 예를 실천함으로써 자긍심을 느끼며 친구사이의 관계를 유연하게 해 주고 있다. 이 유연함은 수업시간에 서로에게 칭찬과 존중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켰다. 그리고 구용법이 학생과 교사 사이, 학생과 학생 사이의 기본적인 약속으로 작용함으로써 학습의 규칙으로 활용되었다. 이 모습은 구용법의 적용이 개인, 친구,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앞 장의 <교육적 적용\_겨울이야기>를 읽어보면 구용법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전인적인 모든 부분을 바르게 고쳐주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구용법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이러한 다양한 교육적 적용이 맞물려 진행됨에 따라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3. 후(後)\_몸공부의 현대적 의의

유교의 전통이 살아있는 조선시대의 교육을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전통은 버려야 하는 옛날의 구습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맞게 다시금 적용되어야 하는 지혜의 알맹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 사회에서 인성교육은 끊임없는 고민의 대상이다. 인성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나타나며 언론 등 사회의 모든 관심 분야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인성의 질은 저하되고 있고, 바른 인성을 위한 대책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 아이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하기 위한 첫 단추로 아이들의 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몸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몸공부의 하나인 구용법 실천을 짚어가며 몸공부의 현대적 의의를 모색해 보자.

구용법은 몸의 태도를 바르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마련한다. 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서로 말과 행동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러한 바른 몸가짐은 바른 마음으로 이어지고, 이 바른 마음이 다시금 바른 몸가짐으로 나타나는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초석이 된다. 좀 더 구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학>의 가르침에 따라 8~9세의 저학년에 서부터 가정과 함께 연계하여 지도해야 한다. 어린 나이에 몸에 베인 습관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가정과 함께 한 지도는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나게 할 것이다.

몸공부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한 번의 교육으로 바른 태도가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지속적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편한 방식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래서 한 번 배운 내용이 몸에 정착하고 다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몸공부의 반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용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구용법 집중실천기간이나 생활 속에서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은 스스로 체화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몸공부의 방법과 함께 사람 사이에 공감과 소통에 이르는 길은 아주 다양하다. 어느 한 가지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교사로서 우리는 아이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올해 초 구용법을 처음 적용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났기에 이 방법이 생활지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오만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진행형의 과정이기에 이

구용법도 소통에 이르는 하나의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몸의 절제를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입장에서만 강요하게 되면 통제로 흘러갈 수 있기에 이것 또한 아이들과 교사 사이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주고받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밑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구용법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연하게 해 주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의 태도를 단지 통제하는 하나의 규칙으로 오용될 수도 있다. 구용법이 단지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의 역할로 작용할 때,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공감과 소통의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될 것이다.

## V. 마무리

아비투스(habitus)란 습관이-몸에-배어서-체화된-무의식의-신체이다.

- 서명석, 2010c: 129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이때 우리의 몸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치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통로이다. 성리학에서는 몸으로 실천하면서 얻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처럼 몸과 마음은 다른 형태를 하고 있지만 따로 떼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는 몸을 좀 더 바르게 갖추으로써 마음의 상태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갖추어진 바른 마음가짐이 몸을 통하여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의 마음공부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학>의 몸공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생의 나이에서는 마음을 다질 수 있는 바른 몸가짐을 배워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아이,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아이, 충동적인 아이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이 '사람다움'을 갖추기 위해 몸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몸공부 방법 중 하나인 구용법(九容法)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목적은 구용법을 교실 현장에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아동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아이들은 구용법 자세를 배우면서 자신의 평소 생활태도를 반성하고 바른 태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각각의 발, 손, 눈, 입, 머리의 자세와 목과 코에서 나오는 소리의 일곱 가지의 자세를 배우면서 아이들은 태도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실천을 하는 동안 마음으로 오는 뿌듯함을 느끼고, 진정 지켜야하는 바른 태도임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일곱 가지의 세부적인 태도를 모두 실천하면 <입용덕>의 바르게 서있는 자세가 되며, 그 위에 밝은 표정과 맑은 미소가 함께 하면 마지막 구용법 자세를 완성하게 된다.

아이들은 예의 바른 인사와 바르게 서 있는 태도 등 자신 스스로 바른 행동을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구용법을 통하여 변화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깨달았다. 이때 변화된 친구의 모습에는 표정이 어두웠던 친구가 바르게 바라보는 눈과 밝은 표정을 계속 연습하여 생활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욱'하는 마음과 함께 싸움을 많이 하는 친구가 구용법의 자세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하고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보였다. 이는 다른 친구들이 그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서로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구용법의 실천으로 만들어진 습관은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형성하여 타인의 장점을 바라보는 눈과 그것을 배우려는 마음을 지니게 하였다.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반에서 배운 것들을 적어보라고 할 때, 아이들은 교사에게서 배운 교과지식을 적기 보다는 자신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준 구용법과 친구들을 보면서 배운 것들을 더 기억하고 있었다. 이것은 바른 태도로 상대를 바라봄으로써 친구의 배려, 친구의 밝은 웃음, 친구들의 도움의 손길을 바르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릇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물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지듯이 상대의 좋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그릇을 더욱 크고 단단하게 그리고 바르게 만들어야함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는 좋은 학급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구용법은 긍정적인 학급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급 규칙의 역할을 하였다. 이는 아이들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몸공부의 장치로 구용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아동들은 도덕적인 지식은 많으나 도덕적인 행동으로의 연결은 잘 되지 않는다. 도덕교과 교육에서는 덕목을 가르치면 마음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그 내면화가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지식들이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바른 몸가짐이 선행되어야 한다.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만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상대방의 행동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의 연계성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의 하나로 구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구용법은 자신의 태도를 절제하고 통제함으로써 바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는 점에서 하나의 수기(修己)의 의미를 갖는다. 사람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한다.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바르게 행함으로써 평생 이루어져야하는 하나의 몸공부 방법으로 이 구용법은 크게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몸공부가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꾸준한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구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스스로 끊임없는 성찰을 하여야 하며, 학생의 발달 수준과 행동 변화에 맞는 학생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자 즉, 나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나는 구용법 실천 연구를 통하여 아이들과 함께 하는 관심 분야를 만들 수 있었고, 단지 책 속에 지식으로 그치는 연구가 아니라, 아이들과 교실 현장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실제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몸가짐을 체화할 수 있는 몸공부의 하나로 구용법을 배웠다. 그리고 아이들의 변화를 통하여 교사로서의 나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만날 아이들을 위한 구용법 적용에 대한 고민을 또 다시 시작하게 된다.

### #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나의 꿈은  
아직도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숨쉬고,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나에게 항상 새로운 힘을 주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답니다.  
너무나도 좋은 우리 아이들에게 옹달샘이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아이들 물 한 모금 마시고,  
더욱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활력소처럼  
힘들어 지친 아이들에게 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처럼  
잠시 샘 옆에 앉아 하늘도 바라보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게끔  
그런 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옹달샘이요.

‘예전에는 내가 아이들에게 이런 옹달샘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이런 옹달샘과 같은 쉼을 주네요.

(2011. 11. 11. 연구자의 교사일지 중에서 발췌함)

## 참고문헌

『예기』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년 개정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등학교 도덕 6 교사용 지도서. 서울: 지학사.

김건중(2006). 이이의 격몽요결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병희(2010). 율곡의 아동교육론: 『격몽요결』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40, pp. 39-55.

김영애(2003). 율곡 이이의 교육사상: 『擊蒙要訣』과 『學校模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영천(1997). 네 학교 이야기: 한국초등학교의 교실생활과 수업. 서울: 문음사.

김영천(2006a). 미운오리새끼. 서울: 문음사.

김영천(2006b).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김영천(2008). 질적 연구: 우리나라의 걸작선(Qualitative research exemplars in Korea). 서울: 문음사.

김영천(2010). 질적연구방법론 III: 글쓰기의 모든 것.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김외솔(2010). 초등교사의 자전적 문화기술지를 통한 수업 성찰.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연(2006). 栗谷의 修養論에 관한 研究: 『擊蒙要訣』과 『聖學輯要』를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2004). 율곡의 아동교육관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세술(2001). 栗谷의 『擊蒙要訣』에 나타난 道德 教育 方法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태순(2004). 격몽요결의 학문론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0(2), pp. 85-107.

박만희(2004). 인성교육교재로서 “격몽요결”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종천(2011). 예, 3천년 동양을 지배하다. 경기: 글항아리.

성백효 역주(1992). 童蒙先習 擊蒙要訣.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서명석(2000). 전통 心學으로 바라본 근대적 교수-학습의 한계: 서양 교수-학습과 동양 心學의 비교. **비교교육연구**, 10(2), pp. 61-83.

서명석(2004a). 공부의 알맹이(實)와 껍데기(殼): 그것의 왜곡과 굴절을 바라보기. **초등교육연구**, 17(2), pp. 127-144.

서명석 외(2004b). 근대와 교육 사이의 파열음. 경기: 아이필드.

서명석(2008). 도덕, 윤리, 인성, 그리고 인격: 개념들 간의 가로지르기와 인격교육의 개념들. **인격교육**, 2(1), pp. 81-105.

- 서명석(2010a). 유가 몸공부법의 존재위상: 『격몽요결』의 구용법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24(3), pp. 139-153.
- 서명석(2010b). 인격교육담론의 재-평가. **인격교육**, 4(1), pp. 23-45.
- 서명석(2010c). 다산의 재구성: 다산의 교육구상과 그것의 현재적 메시지. **다산학술회의**, 7, pp. 95-134.
- 신동은(2003). 『소학』의 실천교육원리와 현대적 의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동은(2004a). 성리학의 몸공부 이해. **교육철학**, 32, pp. 123-144.
- 신동은(2004b). 『小學』의 교육적 원리 연구. **교육철학**, 31, pp. 45-70.
- 안진희(2009). 『격몽요결』에서 이해한 리더십 개발과 모형.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병오(2010). 도덕 교육의 입장에서 『격몽요결』 읽기. **윤리철학교육**, 14, pp. 109-122.
- 윤종을(2002). 栗谷의 『擊蒙要訣』에 나타난 교육사상에 대한 현대적 의미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동(2004). **꿈이 성공하는 나라: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아서**. 서울: 동인서원.
- 이 이(1577). 擊蒙要訣. / 이민수 역(2003). **격몽요결**. 서울: 을유문화사.
- 장순덕(2008). 『격몽요결』과 『학교모범』에 나타난 율곡의 독서교육관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사념(2009). 『擊蒙要訣』에 나타난 교육방법의 현대적 적용.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호훈(2005). 16세기 말 율곡 이이(李珣)의 교육론: 『격몽요결』, 『학교모범』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5, pp. 1-38.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0).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채경숙(2009). 『격몽요결(擊蒙要訣)』에 나타난 가치 및 덕목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인격교육학회 편(2010). **인격과 교육 사이의 파열음**. 경기: 양서원.
- 허경진 옮김(1996). **한국의 한시26. 栗谷 李珣 詩選**. 서울: 평민사.
- Bachelard, G.(1943). *L'air et les songes*. Librairie José Corti. / 정영란 역(2008). **공기와 꿈**. 서울: 이학사.
- Clandinin, D. J., & Connelly, F. M.(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 Creswell, J. W.(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2nd ed.). / 조홍식 외 공역 (2010). **질적 연구방법론(2판):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Creswell, J. W.(2009).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3rd ed.). CA: Sage publications.



- Denzin, N. K., & Lincoln, Y. S.(eds)(2005).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3rd ed.). CA: Sage publications.
- Given, L. M.(2008). *The Sage Encyclopedia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CA: Sage publications.
- Glesne, C.(2011).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4th ed.). NJ: Pearson.
- Hatch, J. A.(2002).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진영은 역(2008). *교육상황에서 질적 연구 수행하기*. 서울: 학지사.
- Ozmon, H. A., & Craver, S. M.(2008).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Education*(8th ed.). NJ: Pearson.





## ABSTRACT\*

### Practice of Guyongbeop in Elementary School

Yang, Jeong-eun

Major in Elementa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eo, Myoung-seok, Ph. D.

The field of Mom Gongbu aims to nurture precepts of self-discipline in children, which in turn helps them to develop and maintain propriety. One strand of Mom Gongbu is Guyongbeop, which features nine elements including physical movements, facial expressions and sound produc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educational effects of Guyongbeop's application in the classroom. The questions guiding this inquiry address whether Guyongbeop allows children to behave themselves, in what ways their behavior improves as a result of the method, and whether the method has a positive effect in the classroom. The results suggest that through Guyongbeop, children are able to become aware of and improve behaviors such as bowing and standing correctly. Furthermore, Guyongbeop encourages positive perception of classmates and thus improves the atmosphere of the classroom. However, for Guyongbeop to be most effective teachers need to interact with students constantly.

\* Key words: Guyongbeop(九容法), Mom Gongbu(몸공부)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February, 2012.



## 부 록

### [부록 1] 족용중 학습지

『격몽요결』속에 들어 있는 九容法

6-4- ( )

㉠

足容重 ← 第一容禮法

不輕舉也 若趨于尊 長之前則 不可拘此

[발의 모양을 무겁게 한다.

발걸음을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존경하는 사람이나 나이 드신 사람 앞으로 달려 나아갈 때에는 이것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

足	容	重
발족	태도용	무거운중

不	輕	舉	也
아니다불	가벼울경	들거	어조사야

若	趨	于	尊	長	之	前	則	不	可	拘	此
만약약	달려갈추	~에게우	존경할존	어른장	~의	앞전	곧즉	아니다불	움을가	잡을구	이차

<아래에 써 보세요.>

足	容	重
발족	태도용	무거운중

不	輕	舉	也
아니다불	가벼울경	들거	어조사야

若	趨	于	尊	長	之	前	則	不	可	拘	此
만약약	달려갈추	~에게우	존경할존	어른장	~의	앞전	곧즉	아니다불	움을가	잡을구	이차

다짐: 평소에는 조금 발을 가볍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무겁게 할 것이다

[부록 2] 수용공 학습지

『격몽요결』속에 들어 있는 九容法

6-4- (

㉒

手容恭 ← 第二容禮法

手無慢弛 無事 則當端拱 不妄動

[손의 모양을 공손하게 한다.

손을 제멋대로 하거나 해이해짐이 없이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의당 단정하게 두 손을 공수하고 망령되이 움직이지 않는다.]

㉓

手	容	恭
손수	태도용	공경할공

手	無	慢	弛	無	事	則	當	端	拱	不	妄	動
손수	없을 무	게으를만	느슬이	없을 무	일사	곧즉	마땅할당	단정할단	손맞잡을 공	아니불	망령될망	움직일동

<아래에 써 보세요.>

手	容	恭
손수	태도용	공경할공

手	無	慢	弛	無	事	則	當	端	拱	不	妄	動
손수	없을 무	게으를만	느슬이	없을 무	일사	곧 즉	마땅할당	단정할단	손맞잡을 공	아니불	망령될망	움직일동

手	容	恭
손수	태도용	공경할공

手	無	慢	弛	無	事	則	當	端	拱	不	妄	動
손수	없을 무	게으를만	느슬이	없을 무	일사	곧 즉	마땅할당	단정할단	손맞잡을 공	아니불	망령될망	움직일동



[부록 4] 목용단 학습지

『격몽요결』속에 들어 있는 九容法

6-4- ㉚ ( )

㉓

目容端 ← 第三容禮法

定其眼睫 視瞻當正 不可流眄邪睇

[눈의 모양을 단정히 한다.

눈동자를 안정시켜서 바라보는 것과 우러러보고 굽어보는 것을 마땅히 바르게 할 것이며 함부로 흘려보거나 삐딱하게 훑쳐보아서는 안 된다.]

㉔

目	容	端
눈목	태도용	단정할단

定	其	眼	睫	視	瞻	當	正
정할정	그기	눈안	속눈썹	볼시	볼쥬	마땅할당	바를정

不	可	流	眄	邪	睇
아니불	움울가	결눈길할유	흘려볼면	삐딱사	훑쳐볼세

<아래에 써 보세요.>

目	容	端
목	태도용	단정할단

定	其	眼	睫	視	瞻	當	正
정할정	그기	눈안	속눈썹	볼시	볼쥬	마땅할당	바를정

不	可	流	眄	邪	睇
아니불	움울가	결눈길할유	흘려볼면	삐딱사	훑쳐볼세



[부록 6] 구용지 학습지

『격몽요결』속에 들어 있는 九容法

6-4- (

④

口容止 ← 第四容禮法

非言語飲食之時 則口常不動

[입의 모양을 다물게 한다.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면 입을 항상 움직이지 않는다.]

④

口	容	止
입구	태도용	다물지

非	言	語	飲	食	之	時
아닐비	말씀언	말씀어	마실음	먹을식	~의	때 시

則	口	常	不	動
곧즉	입구	항상상	아니불	움직일동

<아래에 써 보세요.>

口	容	止
입구	태도용	다물지

非	言	語	飲	食	之	時
아닐비	말씀언	말씀어	마실음	먹을식	~의	때 시

則	口	常	不	動
곧즉	입구	항상상	아니불	움직일동

\*\* 오늘 급식시간에 <구용지>의 태도를 실천해 봅시다. 실천을 해본 나의 태도를 돌아봅시다.

- 느낌 : 나는 입을 뜯 버려져 있어 입을 자주움직이는데  
그걸 고치려니 좀 힘들다.

- 마음가짐 : 구용지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나의 다짐을 쓰세요.

구용지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부록 7] 성용정 학습지

『격몽요결』속에 들어 있는 九容法

6-4- (

⑤

聲容靜 ← 第五容禮法

當整攝形氣 不可出噦咳等雜聲

[목소리의 모양을 조용하게 한다.

마땅히 形氣를 고르고 가다듬어 구역질이나 가래침 등의 잡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⑤

聲	容	靜
소리성	태도용	고요할정

當	整	攝	形	氣	不	可	出	噦	咳	等	雜	聲
마땅할당	가치런할정	정돈할 섭	모양형	기운기	아닐불	옳을가	나가다출	구역질할해	기침해	무리등	섞일잡	소리성

<아래에 써 보세요.>

聲	容	靜
소리성	태도용	고요할정

當	整	攝	形	氣	不	可	出	噦	咳	等	雜	聲
마땅할당	가치런할정	정돈할 섭	모양형	기운기	아닐불	옳을가	나가다출	구역질할해	기침해	무리등	섞일잡	소리성

\*\* <성용정>을 배우고 나서 나의 모습이나 주변의 모습을 되돌아 봅시다.

- 그 동안 나의 모습이나 주변의 모습 :

사람들이 길을가다가 앞나 사이로 침을 뱉는걸 본적이 있다.

- 그 모습을 보았을 때나 내가 했을 때의 마음 :

침뱉는건 환경이 더럽혀지고, 소리가 들기 싫다

\*\*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나의 다짐을 쓰세요.

성용정을 배우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 들었다



[부록 8] 두용직 학습지

『격몽요결』속에 들어 있는 九容法

6-4-

⑥

頭容直 ← 第六容禮法

當正頭直身 不可傾回偏倚

[머리의 모양을 곧게 해야 한다.

마땅히 머리를 바르게 하고 몸을 곧게 해야 하며

머리를 기울여 돌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서는 안 된다.]

⑥

頭	容	直
머리두	태도용	곧을직

當	正	頭	直	身	不	可	傾	回	偏	倚
마땅할당	바를정	머리두	곧을직	몸신	아니불	움울가	기울경	돌회	치우칠편	기댈의

<아래에 써 보세요.>

頭	容	直
머리두	태도용	곧을직

當	正	頭	直	身	不	可	傾	回	偏	倚
마땅할당	바를정	머리두	곧을직	몸신	아니불	움울가	기울경	돌회	치우칠편	기댈의

\*\* <두용직>을 배우고 나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나의 다짐을 쓰세요.

두용직을 배우기 전 나는 항상 고개를 비딱하게 세고,  
턱은 고는바릇이 있었는데 두용직을 통해서 머리를  
바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록 9] 기용숙 학습지

『격몽요결』속에 들어 있는 九容法

6-4-

[7]

氣容肅 ← 第七容禮法

當調和鼻息 不可使有聲氣

[숨의 모양은 엄속해야 한다.

마땅히 호흡을 고르게 할 것이요 멋대로 소리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

[7]

氣	容	肅
코에서 나오는기	태도용	엄속할숙

當	調	和	鼻	息	不	可	使	有	聲	氣
마땅할당	고를조	화합화	코비	숨헐식	아니부	옳을가	멋대로사	소유할유	소리성	기운기

<아래에 써 보세요.>

氣	容	肅
코에서 나오는기	태도용	엄속할숙

當	調	和	鼻	息	不	可	使	有	聲	氣
마땅할당	고를조	화합화	코비	숨헐식	아니부	옳을가	멋대로사	소유할유	소리성	기운기

- 1. 발 : 족용중 ○
- 2. 손 : 수용공 ⊙
- 3. 눈 : 목용단 ○
- 4. 입 : 구용지 △
- 5. 소리 : 성용정 (입에서 나는 소리) ⊙
- 6. 머리 : 두용직 ○
- 7. 코 : 기용숙 (코에서 나는 소리) ⊙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부록 10] 입용덕 학습지

『격몽요결』속에 들어 있는 九容法

6-4-

㉞

立容德 ← 第八容禮法

中立不倚 儼然有德之氣像

[서있는 모양은 덕스럽게 한다.

똑바로 서서 치우치지 않아 삼가 덕이 있는 기상을 만든다.]

㉟

立	容	德
서다 입	태도용	덕 덕

中	立	不	倚	儼	然	有	德	之	氣	像
가운데쯤	서다 입	아니불	기댈의	삼가할 엄	그러할 연	있을 유	덕덕	(어조사) ~의	기운기	형상상
(笑) 덕이 있는 기상, 아름다운 기상										

<아래에 써 보세요.>

立	容	德
서다 입	태도용	덕 덕

中	立	不	倚	儼	然	有	德	之	氣	像
가운데쯤	서다 입	아니불	기댈의	삼가할 엄	그러할 연	있을 유	덕덕	(어조사) ~의	기운기	형상상

\*\* 내가 생각하는 <입용덕>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사람(친구)가 똑바로 서있는것 <단정한 모습>  
바르고 곧게

\*\* <입용덕>의 거울로 나의 자세를 되돌아보았을 때,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적어봅시다.

입용덕! 정말 좋구나. 난 맨날 똑바로 서있지 않고 삐딱하게 서있어서  
보기 싫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삐딱하게 서지 않고, 바르게  
서있어서 보기 좋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다.

[부록 11] 색용장 학습지

『격몽요결』속에 들어 있는 九容法

6-4-

9

色容莊 ← 第九容禮法

顔色 整齊 無怠慢之氣

[얼굴 모양[빛]은 장엄하게 한다.

얼굴빛을 단정히 하여 태만한 모양[기운]이 없어야 한다.

9

色	容	莊
빛색	태도용	장엄할장

顔	色	整	齊	無	怠	慢	之	氣
얼굴안	빛색	가치런할정	가치런할제	없을무	게으를태	게으를만	(어조사)~의	기운기

<아래에 써 보세요.>

色	容	莊
빛색	태도용	장엄할장

顔	色	整	齊	無	怠	慢	之	氣
얼굴안	빛색	가치런할정	가치런할제	없을 무	게으를태	게으를만	(어조사)~의	기운기

\* 율곡 이이 선생님이 자세히 기록해 놓은 <구용법> 의 아홉 가지 내용을 다시 생각하면서 적어봅시다.

- ① 족용중 : 발의 모양을 무겁게 한다.
- ② 수용공 : 손의 모양을 공손하게 한다.
- ③ 목용단 : 눈의 모양을 단정히 한다.
- ④ 구용지 : 입의 모양을 다물게 한다.
- ⑤ 성용정 : 목소리의 모양을 조용하게 한다.
- ⑥ 두용직 : 머리의 모양을 곧게 한다.
- ⑦ 기용속 : 숨의 모양은 엄숙해야 한다.
- ⑧ 입용덕 : 서있는 모양은 덕스럽게 한다.
- ⑨ 색용장 : 얼굴 모양(빛)은 장엄하게 한다.



[부록 12] 구용법 성찰일지

- ▣ 다음 상황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고, 기억나는 행동이나 말의 변화를 적어봅시다.
- (1) 4, 5학년 때 알고 지낸 친구를 찾아보고, 지금 우리 반에서 구용법을 배운 후 달라진 친구모습 찾기
- (2) <구용법>을 배운 우리 반 친구의 모습 중 달라진 행동이나 말의 변화
- (3) 나의 모습의 달라진 모습

2011년 6월 3일 금요일	2011년 6월의 시작...
우리반 친구들은 오늘 윙크이이 선생이 쓴 격몽법 중 구용법을 모두 배웠다	
우리반 친구들 중에서는 다리 한 쪽은 짝다리로 서는 친구도 있었고, 책상에 앉았을 때 턱을 괴는 친구들도 있었고 가만히 서 있을 때 발이나 손 움직이는 친구나 목을 하는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구용법을 배우고 나서 우리반 친구들의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었다. 구용법을 배우고 난 우리반은 수용공과 즉흥성을 습관처럼 해서 다른 선생님들께 인사를 할때 바른 자세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반에서 목은 목도 자주 들리지가 않는다.	
그리고 나도 예전보다 행동이 달라졌다. 예전 짝다리로 서고, 턱을 자주 괴던 내가 구용법을 배우고 난후 짝다리는 바른 완전히 고쳤고, 책상에 앉아서 턱을 괴는 습관은 많이 나아졌다.	
그리고 인사할 때나 가만히 서있을 때는 수용공, 즉흥성을 잘 지키게 되었다.	
그리고 난 구용법을 배우고 난후 한번 들린 습관을 한번에 고치기엔 어렵다고 느꼈다. 난 자각한 책상을 턱에 괴어서 고칠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70%정도는 턱을 괴는 습관을 바린것 같다.	
난 이제부터 구용법을 반드시 지킬것이다.	

(2011. 6. 3. 김○○의 성찰일지)



[부록 13] 몸공부법을 알리는 가정통신문

▶▶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우리들...

6학년 4반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 2011. 07. 15. 주말이 기다려지는 무더운 금요일

☒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안녕하십니까? 6학년 4반 담임 양정은입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3월에 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렸는데 어느덧 7월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네요. 먼저 이렇게 예쁘고, 멋지고 착한 아이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글동글한 아이들을 만나서인지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하는 6학년 하루하루가 마음이 참 편합니다. 바다가 하늘의 모습과 색을 닮아 나타나듯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한 분 한 분의 부모님들도 우리 반 아이들처럼 동글동글 너그러운 분들이란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 혹시 <구용법>을 들어보셨어요?

혹시 6학년에 들어와서 아이들의 말이나 글 속에서 <구용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요즘 많은 곳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성의 덕목들도 하나의 머리 속 지식으로 남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릇에 담아 놓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듯이, 일단 아이들의 몸가짐이 바르게 되면 그 안에 담기는 마음까지도 더욱 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올 해 6학년 우리 반 아이들에게 격용요결 속 <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용에서 9용까지의 내용은 아이들에게 한 번 들어보세요.(발의 모습, 손, 눈, 입, 목에서 나오는 소리, 머리의 모습, 숨을 쉴 때, 서 있는 자세, 얼굴 표정) 그리고, 우리 아이가 6학년이 되어서 달라진 태도가 있는지 한 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 글을 드립니다. 항상 시험성적의 점수만 가정으로 보낼 때가 많은데 오늘은 아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 봐주세요. 물론 당연히 지켜야 되는 태도일지라도,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부모님이 바라보는 우리 아들, 딸~!

6학년이 되어서 혹시 부모님이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작은 변화이지만, 예절이나 몸가짐이나 표정이나 마음의 변화를 보신 부분이 있다면 적어서 보내주세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구요.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내 아들, 내 딸을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귀찮으시다면 그런 변화를 저에게도 알려주시겠어요? 무더워지는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2011.07.15 담임 양정은 드림

[부록 14] 학부모 회신서

부모님이 바라보는 우리 아들, 딸!!

6학년이 되면서 혹시 걱정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런 걱정 사이에서도 한 학기를 보낸 아이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작은 변화이지만 예절이나 몸가짐, 아이들의 표정, 마음의 변화를 보신 부분이 있다면 적어서 보내주세요. 부모님의 생각이 담긴 내용이라면 어떤 글이라도 좋습니다.

1 학년을 입학할 당시 많이 영어 속에서 또, 자제 속에서  
보냈던 시간이 벌써 초등과정의 마지막 학년이  
접어들었네요!!  
어찌보면 가장 인생전에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라  
어렵고 목상할 때도 부모 입장이나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이나 아한가지라 생각됩니다.  
유년 아이들은 행동도 예전같지 않지만 무엇보다  
언어재능 언어에 너무 기쁨을 느끼는 새앙이 됩니다.  
언어도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친구들끼리 여성부터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언어이다 보니.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의  
<격용요결> 과 같은 가르침은 자습시대에 너무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흐뭇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루씩의 연습으로 가르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서도  
낯을 한학기쯤. 잘 되도록 주신다면 더 많은  
흥미로라 생각합니다.

<격용요결 속 구용법>

조선시대 아이들의 글을 깨치기 위해서는 <천자문>이 그리고, 아이들이 지켜야하는 바른 태도를 가르칠 때에  
는 <소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윤곡 선생님이 우리 아이  
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격용요결>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구용법>은 그 책 속에 나  
오는 바른 행동의 9가지 실천사항입니다.

(2011. 7. 18. 문○○의 학부모 편지)